

# 『논어』에서 인성교육의 길을 찾다

이천승(성균관대 교수)

## 1강 : 인仁, 참사랑의 길

### 1. 사람다운 사람이 그리운 세상

얼마 전 길을 가다 구두 밑창이 떨어졌다. 구두를 수선하던 인상 좋은 아저씨는 혼한 일이라는 듯 혼잣말을 했다. “요새 구두는 대부분 물에 취약해요. 조각조각 붙여 만들기 때문에 근사해 보여도 스며드는 물을 막진 못하죠.”

그 말을 듣고 다시 살펴보았다. 장식이나 테두리는 물론이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오려 붙인 가운데도 부분의 조합이었다. 구두 하나에도 현대 사회의 일면이 담겨있음을 새삼 느꼈다. 갖가지 장식으로 겹겹이 붙여 만든 여성용 하이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동안 구두 수선은 닳은 굽을 바꾸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구두는 수많은 부분을 모아 백여 가지가 넘는 공정을 거쳐 만든다. 신다보면 이래저래 교체해야 할 부분이 늘어간다. 부분별로 나누어 전체를 완성하는 분업은 시간도 줄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부분이 모이다보니 만나는 부분이 취약하다. 이 때문에 디자인은 뛰어나지만 제품의 수명은 짧다.

부분과 부분을 결합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은 부분들의 묶음이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엇갈리고 틀어지면서 나타나는 균열현상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하다. 때문에 부분들은 항상 단절의 위험 앞에 놓인다. 영화 ‘모던 타임즈’에서 찰리 채플린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나사를 조이는 기계공이다. 그는 돌아가는 벨트 앞에서 나사를 조이지만 자신이 만드는 완제품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는 일과 분리된 채 작업만 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분업을 제시했다. 한 개의 핀을 만드는데 18개의 공정을 거친다. 한 사람이 만들 경우 하루에 20개밖에 못 만든다. 하지만 각 공정을 18명이 맡으면 하루에 5만 개 이상의 핀이 나온다. 대단하다.

분업은 효율성과 생산성은 높다. 개인과 일을 분리시켜 주어진 작업만을 요구한다. 작업은 하지만 일에서 소외되어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부분일 뿐이다. 이는 전체와 소통을 어렵게 만든다. 자신이 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는 장인정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는 관계와 소통 대신 경쟁으로 인한 고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로움과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반면에 행복을 느끼는 만족도는 줄고 있다. 오늘날 한국인이 느끼는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반영이다. 쫓기는 1등보다 여유로운 2등이 좋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자칫 뒤처지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걱정을 떨쳐낼 수 없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경쟁과 단절의 연속이다. 물질문명의 발달 이면에 놓인 개체의 단절과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을까? 2천5백 년 전에도 사람살이에 문제가 많았다. 그때 사람다운 관계 회복을 미덕으로 삼은 이가 있다. 공자다. 그를 통해 이 시대의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는 것은 어떨까?

몇 년 전에 국영방송사인 KBS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에서 유교가 지닌 영향력을 주제로 특집방영 하였다. 1년 반 동안 유교의 역사와 현주소를 탐사하여 <유교, 2500년의 여행>이란 이름으로 제작되었으며, 동시에 『유교, 아시아의 힘』<sup>1)</sup>이란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하였다. 제작진은 광범위한 현장취재를 통하여 유교는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우리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으로 대응한다면 '유교는 현대문명을 이끌어 갈 충분한 힘을 지닌 가치'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고 단언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시청자들에게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반인들이 유교에 대하여 심도있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유교는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문화적·도덕적 기제이며 내일의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인접한 한국은 유교가 유입된 이래 정치제도와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특히 14세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통치방식과 가족관계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제도에 원칙을 제공하는 기본철학이 되었다. 한 사회학자는 "유교는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므로 유교를 모르고서는 한국사회와 한국인을 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한다.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에 미치는 유교의 지속적 영향력은 한국인의 생활양식 곳곳에 무의식적으로 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날과 추석을 전후하여 부모형제를 찾아보고 제사에 참여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가는 인파, 몇 년 전에는 『儒林』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등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지속적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한국 사회와 한국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무엇보다 먼저 유교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어느 사상이나 그러하

듯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갈등의 폭은 존재한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유교에 대한 인식만큼 빛과 그림자가 지속적으로 교차하는 경우는 드물다. 약 100년 전 근대화 실패하여 국권을 상실하였을 때, 그 책임을 전적으로 무능한 조선왕조와 그 사상적 기반이었던 유교에 전가시켰다. 조선이 근대에 실패한 사상적 배경을 주자朱子 절대주의의 경직된 가치관, 현실과 유리된 공리공담 등으로 보고 외면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1950년 민족상잔의 아픔을 달고 경제성장과 민주화 발전을 위한 고군분투한 시대에서 유교는 부담스러운 과거의 유산으로 청산과 극복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인들은 세계 10위권에 근접하는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독재를 물리치고 어느 정도 민주화를 이루었으며,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제 대회를 개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아울러 21세기에 들어서는 정보기술과 생명공학 등의 영역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하고, 겨울연가, 대장금 등 '한류韓流'라는 이름 아래 한국제 대중문화상품을 아시아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하고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해나가고 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교적 문화전통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하는 지적 흐름이 사회과학분야를 중심으로 '유교담론'을 형성하여 왔고, 유교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에서 유교의 빛과 그림자는 언제나 잠재되어 있으며 오늘날도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유교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유교가 21세기 한국 문화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 공자의 삶과 열정

최근 4만 쪽이나 되는 공자 집안 족보가 『공자세가보孔子世家譜』 80권으로 대폭 수정되어 발간되었다. 이로써 200여만 명이 수록된 공자 집안 족보는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집안 족보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70여 년 만에 대대적으로 수정돼 발간된 이번 족보에서는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출가한 여성의 이름, 소수민족과 결혼한 공씨도 처음으로 포함되어 기존의 '남존여비'의 관행을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모습의 출간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필자가 몇 년전 마카오의 한 학술대회에서 만난 공자후손은 자신이 공씨 성을 가진 청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그 자부심이 남달랐다. 그뿐만이 아니라 학회의 주최 측에서도 공씨 후손의 참여가 마치 학회를 빛내주는 촉매제라는 듯이 은근히 지켜세

우는 분위기였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공자를 중심으로 결집된 후예들이 지닌 자부심의 원동력, 그리고 유학을 숭상하던 우리 선조들이 정신적 고향으로 삼았던 공자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예나 지금이나 우리네 인간살이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코지하는 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사는 그러한 참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갈망한다. 나와 타인의 원활한 관계, 나아가 개인과 전체 사회의 조화로운 모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공자(BC 479~551)에게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중국에서 춘추시대라는 무도가 판치는 패권주의적 혼란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람다움의 길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던 성스러운 인물이었다.

공자는 노나라 추읍[지금의 산둥성 曲阜]의 구석진 곳에서 아버지가 한동안 누군 지도 모른 채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해야 했던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관심없이 묻혔던 기존의 문화를 묵묵히 체득하며 학문을 닦고 자신을 수양하였다. 어려서부터 제사에 쓰는 제기들을 늘어놓고 놀거나, 군주를 제치고 위세를 부리며 제멋대로 실권을 행사하던 대부들을 강도 높게 질타하면서 제대로 된 국가기강을 확립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기록 등은 서로 간에 넘나들 수 없는 질서[禮]를 세워 갈등을 완화시키고 평화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러나 약소국이었던 노나라는 그의 이상을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고국을 떠나 주변국을 돌아다니면서[周遊天下] 자신의 이상을 설파하였다.

출생의 남다른 고군분투했던 젊은 시절을 제외하고 공자의 일생에서 인상적인 몇 가지 사실이 있다. 하나는 공자가 34세(BC 518)때 당시 실권자인 맹희자가 죽음에 임박하여 아들 맹의자로 하여금 공자에게 수학하도록 유언했고, 그 해 공자는 맹의자 일행을 데리고 수도인 주나라를 탐방한다. 공자의 문화적 충격과 노자를 만났다는 기록도 이즈음에 나온다. 이듬해 노나라에 내란이 발생하고 소공이 이웃 제나라로 쫓겨 가자 공자는 그를 따라 제나라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낸다. 공자가 태산을 넘은 것은 이때가 처음이며 아직도 태산에는 공자와 관련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다.

다른 하나로 귀국 후 공자는 노나라 정치에 깊이 간여하게 되면서 52세 때는 삼경의 으뜸인 대사구에 이르는 등 행정 실무경험을 충실히 쌓았다.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무관들을 대동한 협곡에서의 탁월한 외교능력을 발휘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노나라 정공을 대신하여 국정을 농단하던 삼환들, 패권을 꿈꾸던 제나라의 미인계에 넘어가는 조정의 현실 등 공자가 넘어야 할 현실의 벽은 간단한 것이 아

니었다. 이때가 공자 나이 55세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68세까지의 14년에 걸친 길고 긴 여정에 돌입한다. 여행 동안 갖가지 일을 경험하였고 심각한 굶주림에 떨거나 자신을 죽이려는 위험에 빠진 적도 한 두번이 아니었다.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리셨으니 저들이 나를 어찌하리오! 공자 자신의 그 당당한 자신감과 깊은 체험은 자신을 따라 여정에 올랐던 제자들과의 진솔한 대화 속에 그대로 녹록히 묻어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학문을 사랑하고 묵묵히 실천하며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안연, 때로는 스승에게조차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던 강직한 성격의 자로, 상당한 재력가 출신이면서 언변에 뛰어났던 자공 등 다양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끊임없이 인생과 학문을 논의했던 값진 여정이었다. 그러한 대화와 경험들의 기록이 우리가 오늘날 손쉽게 사볼 수 있는 『논어論語』이다.

단 며칠 동안의 여행이더라도 일상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이켜보고 더 멋진 일상의 복귀를 꿈꾸기 마련이다. 50대 중반부터 시작된 14년 동안의 기나긴 여정 속에 세상을 구제하려는 공자의 열망은 사람사는 세상이라면 어디 간들 부담이 없었으며[磨而不磷], 그 속에 만나는 인간군상에서 진정한 삶의 모습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아침에 도道を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여한이 없다” 이러한 자신의 진리에 대한 각성을 못 제후들과 함께하고자 설파하였지만, 당시에 그를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큰 안목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 진리에 대한 확신에 사로잡힌 공자는 고국 노나라에서 다시금 희망의 싹을 키우기 위해 귀향길에 올랐다. “돌아가야지, 돌아가야지. 크나큰 뜻을 품고 있는 고향의 청년들을 위해서 내 그들의 높은 이상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키워주어야겠다.” 공자가 만년을 모국에서 제자교육에 헌신하면서 길러낸 문하생은 3천명에 달했고, 그 가르침의 기록들이 『논어』 등에 풍부히 남아있다.

## 2. 인仁, 더불어 살기

### 1) 선생님! 인이 뭐죠?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 이는 공자가 처음이었다. 그런 공자가 이루고자 한 세상은 사람이 사람다운 세상이었다. 흔히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다. 남을 속이며 자신의 잇속만을 챙기

는 사람들이 있다. 속내와 달리 겉만 번지르르한 얄미운 사람이 많다. 공자가 살던 시대 또한 그랬다. 덕을 가장한 향원鄉原과 번지르르한 말솜씨로 본질을 왜곡시키는 교언영색자巧言令色者. 공자가 미워하고 멀리 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공자가 추구한 사람다운 사람은 어떤 존재들일까? 공자는 '인仁'을 통해 사람다운 사람과 사람의 길을 제시한다. 인에 관한 논의는 『논어』 58개의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仁자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105번이나 된다. 공자는 '인'을 자신의 핵심 가치로 삼았고, 인을 통해 사람다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사전에서 풀이하는 인仁자의 대표적인 뜻은 '어질다'이다. 그밖에 애정, 동정, 친애, 사람마음, 불쌍히 여김 등의 뜻이 있다.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너그럽고 착하며, 슬기롭고 덕행이 높은 마음의 소유자를 포괄적으로 인자라고 지칭한다. 후한 시대의 허신이 쓴 『설문해자』는 인仁을 '사람[人]과 둘[二]'의 조합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둘'은 중복을 나타내는 부차적인 요소이다. 그 둘이 무엇이나에 따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이 깔고 앉은 편안한 방식' 혹은 '무엇인가를 등에 지고 있는 것' 등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은 성숙된 자아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도덕적 인격이나 상호의존성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격을 가리킨다. 그래서 인을 '사랑'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논어』에 기록된 인은 한마디로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렵다. 어떤 대목에선 집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밖에서 어른들께 공손히 하는 것이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라고 한다. 또 어느 곳에서는 벗과 사귀어 인을 돕는다고 말한다. 때로는 품성이 강하고 굳세며 질박하고 어눌한 것이 인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널리 배우고 뜻을 독실하게 하며, 간절하게 묻고 가까운 것을 생각하는 공부 자세를 인이라고 했다.

공자는 제자들의 질문에 상황 따라 다른 답변을 주었다.

사랑함이다.(『논어』 안연)<sup>2)</sup>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논어』 안연)<sup>3)</sup>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예를 해서 무엇 하겠는가? 사람이면서 인하지 않으면 음악을 해서 무엇 하겠는가?(『논어』 팔일)<sup>4)</sup>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감이 인을 행함이다. 하루 동안이라도 자기의 사욕을 이겨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으로 돌아가리다. 인을 행함은 자기로 말미암지, 남으로 말미암겠는가?(『논어』「안연」)<sup>5)</sup>

오직 인자라야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다.(『논어』「이인」)<sup>6)</sup>

이처럼 인에 관한 공자의 언급은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그 이유는 공자가 현장을 외면한 책상물림의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는 관료로서 성공과 실패를 맛보았다. 오랜 세월 주유천하周遊天下하며 많은 군주와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다. 환난과 고초도 겪었다. 수천 명의 제자들과 함께 했다. 공자의 삶은 그 누구보다 다양하고 다채롭다. 그런 만큼 삶에 대처하는 방식, 인에 관한 이야기도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을 말하는 공자의 삶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아야 한다. 그럴 때 그가 지향한 사람다운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

## 2) 평생 걸어야 할 길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이다. 소중한데. 누구나 가치 있게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인생의 가치는 저마다 다르다. 때문에 하나의 잣대로 매김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는 일상에서 좌절하기도 한다. 구차스럽게 살기보다 더 큰 목표를 향해 정진해 나가기도 한다.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간다.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짧다. 고은 시인의 '그 꽃'이란 시다. 시는 짧지만 많은 생각을 건넨다. 흔히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말한다. 한데 우리는 방향도 목표도 잃고, 눈앞의 아름다움조차 보지 못한다. 속도 때문이다. 보다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 최고다. 그 위안마저도 쉽지 않다. 숨을 몰아쉬며 올라간다. 뒤처지는 게 두려워 주변도 돌아볼 수 없다. 자신이 간절히 원해서가 아니다. 남들이 가니까 덩달아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하다. 발밑에 핀 아름다운 꽃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열다섯 나이에 삶의 풋대를 세운 공자. 그에게는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 바로 인이다. 모든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을까? 공자의 원대한 꿈은 이 물

음에서 시작한다. 공자의 인에는 이러한 열망이 담겨 있다. 사람 안에 하늘마음이 담겨 있다. 그 때문에 인의 실현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뜻 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인을 해치지 않고,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인을 이룬다.(『논어』「위령공」)<sup>7)</sup>

오직 뜻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이라야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안중근 의사가 그랬고, 유관순 열사의 삶이 그러했다. 사람은 물과 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나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 인이다. 그것이 사람다운 삶을 이루는 길이다. “목숨을 내던져 인을 이룬다.” 절절하다. “아침에 길[道]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논어』「이인」) 간절하다. 사람다운 삶에 대한 절실한 열망이다. 공자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의 길로서 인을 제시하였다. 인은 공자의 평생을 사로잡은 핵심 주제였다.

### 3) 선한 마음의 씨앗

사람다운 세상에 대한 공자의 꿈은 당대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갈등과 혼란이 아닌 조화와 질서의 세상, 그 희망의 싹을 틔우려는 노력은 계속 되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통찰 역시 깊어졌다. 맹자가 바통을 이었다. 맹자는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을 발견했다.

영금영금 기어가는 아기가 우물에 막 빠지려는 순간, 깜짝 놀라 달려가지 않을 사람이 그 누구일까? 그 마음은 사람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아기를 구해서 그 부모와 교분을 트거나 보상을 받겠다는 계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의 본성에 그런 자발적인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어서 저절로 드러날 뿐이다. 맹자의 논리는 선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고, 악한 본성을 타고난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된다는 유전적 결정론이 아니다. 또 환경에 의해 착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다는 환경 결정론도 아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저절로 그러하다. 사람 또한 본래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한다. 저절로 그러한 도덕적 본성이다. 이것이 인이다.

맹자는 확신한다. 우물가에 기어가는 아이를 본 순간 구해주려고 저절로 달려가듯이, 우리에게도 도덕적 마음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내재된 그러한 도덕적 마음이 ‘사단四端’이다. 맹자의 ‘네 가지’다. 마음에 대한 위대한 발견이다. 가없고 애처로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惻隱之心이다. 자신의 잘못을 부

끄러워하고 남의 거짓을 미워하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이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내주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이다.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질이 도덕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을 구체화해 나갔다.

맹자는 도덕의 기원을 어떤 외부적 힘이나 규칙·관습에서 찾지 않았다. 도덕의 본질은 내 마음 속에서 저절로 솟아나온다. 인간이 여타의 존재자들보다 소중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안에 간직하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을 확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실 세계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다. 하지만, 누구나 그 원초적 마음을 돌이킨다면 더 이상 서로 분리된 타자가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차마 지나치지 못한다.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그를 도우려는 마음이 생긴다. 이 뿐 아니다. 학대받는 동물의 울음소리에 나도 운다. 그들의 공포에 나도 떠난다. 훼손된 자연 환경을 보면 내가 망가진 양 안타깝다. 이는 사람의 인이 대상과 하나가 되어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뿌리가 하나이므로 만물의 마음을 느낀다. 한 뿌리이기에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 그 뿌리가 인이다.

### 3. 사람다움의 길을 찾아

#### 1) 수례의 두 바퀴, 충과 서

매사에 일관된 모습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시인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도종환)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줄기를 세운다. 꽃은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으며 피어난다. 우리네 삶도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꽃대를 세워 간다.

어느 날 공자는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문득 증자의 이름을 불렀다. 그리고 한마디 말을 던졌다. “나의 도는 하나의 이치로 꿰어져 있다.”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 증자는 어리지만 묵묵히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는 선생님의 취지를 금방 깨닫고 서슴없이 “예”라고 답하였다. 뜬금없는 말씀을 남기고 공자가 자리를 뜨자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무슨 뜻이야?” 증자가 주저 없이 말했다.

스승님의 도는 충과 서 뿐입니다.(『논어』「이인」)<sup>8)</sup>

증자는 평소 충과 서의 마음가짐으로 일관했던 공자의 삶을 직시했다. 중심[中]과 마음[心]이 합쳐진 충忠자는 자신의 진심을 다한다는 의미다. 서恕자는 같다는 여如와 마음이 합쳐진 글자다. 서는 충과 함께 인을 추구하는 공자의 마음가짐을 잘 드러내 준다. 충은 일처리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마음이다. 때문에 전통사회에서 충은 임금과 나라에 대한 충성의 뜻이기도 했다. 충은 조금의 사적 이기심도 개입되지 않는 순수한 중심이다. 충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에 한 치의 어긋남 없는 마음가짐이다. 이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이 처한 주변으로 그 마음을 확대하여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서의 마음으로 넓힌다[推己及人]. 이처럼 자기에게 충실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충과 서는 인에 이르는 길잡이 마음이다.

공자의 대표적인 제자들은 독특한 개성과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자공은 언변과 외교, 상재商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재능이 뛰어났다. 자공은 인의 중요성을 알고서, 인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다소 원대한 포부를 제시하였다. “만일 백성에게 은혜를 널리 베풀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인이라 할 만하지 않습니까?”(『논어』「용야」) 제자의 능력과 포부를 잘 알고 있는 공자였지만 잠시 억누른다. 만백성의 구제. 이 목표 앞에선 성인聖人들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 이처럼 너무 지나친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 공자는 자공에게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다.

인자는 자신이 서고 싶으면 남도 세워 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이르게 해준다. 자기와 가까운 데서 취하여 비유할 수 있으면 인을 실행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논어』「용야」)<sup>9)</sup>

공자는 인의 실천방법을 먼 곳에서 찾지 않고 자기와 관계된 일상에서 찾는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서고 싶은 것처럼 남들도 그렇다. 자신이 부자가 되고 싶은 것처럼 남들도 그렇다. 따라서 자기 혼자 독식하지 말고 남도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처럼 『논어』에서 충과 서의 구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표현된다.

문을 나가서는 마치 큰 손님을 만난 듯이 하고, 백성을 부릴 때는 마치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해야 한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라 안에서도 원망이 없고, 집안에서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논어』「안연」)<sup>10)</sup>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유학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변을 잘 정돈하고 다른 사

람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성실의 습관화를 교육한다. 물 뿌리고 마당 쓸며 상대를 대하는 쇠소응대灑掃應對의 예절이 몸에 배도록 한다. 공자는 큰 손님을 대하듯 신중한 대인관계를, 제사를 모시듯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다. 자신을 가다듬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요구하지 않는 '서懃'의 정신으로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남을 배려하기가 쉽지 않다. 그 때문에 평생의 좌우명을 구하는 자공에게 공자는 다시 서를 다짐한다.

자공이 물었다. “한 마디 말씀으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서懃이리라.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남에게 바라지 말라.”(『논어』「위령공」)<sup>11)</sup>

이처럼 충실한 마음의 표현인 충과 타인에 대한 배려인 서는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두 축이다. 충서는 충실한 마음으로 흐트러지기 쉬운 자신을 지키고, 그 마음을 주변으로 확대시키는 자세이다.

#### 4. 가정에서 시작되는 사랑의 길

“부모를 공경하라”는 낱고 길러준 것에 대한 보은의 심정은 특정한 종교의 교리나 시대를 넘어 인류 공통의 보편적 정감이다. 일상에서 효 윤리의 강조와 그 연장선상에서 조상숭배의식이 강했던 유가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의미는 더욱 각별했다.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대우받는 시대’라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동양의 전통사회에서 제사를 통한 조상숭배의식은 그 어느 가치규범보다 우선시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유가에서 ‘효를 모든 행위의 근본’이라는 당위적 명제로 특별히 강조되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효도가 중요하다는 당위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가에서 효를 특별히 강조한 이유와 자기 수양으로 환원되는 점을 검토하려는 데 있다. 유가는 수기修己와 안인安人이라는 자기수양과 타인에 대한 배려의 두 측면에서 바람직한 윤리적 방향을 모색한다. 가정에서 배운 고마움이나 애뜻함의 정서가 모든 사회관계로 확산되는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수신제가修身齊家를 강조하는 유가윤리의 기초로 자리 잡는다. 그러나 유가의 본질과 현실적 적용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효의 강조가 자칫 가족단위의 혈연이나 지연의 수준에 그쳐, 그 자체가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적인 마음으로 확충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연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수신이 곧바로 제가로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일상의 도덕화를 꾀하는 유가에서 수신과 제가의 실천적 토대인 효 윤리의 의미와 실천주체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경을 토대로 하는 정착적 생활과 자연계의 순환적 연계성을 인식하였던 농경문화의 제반 특성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 △ 정착적 생활과 친밀감의 토대로서 효

BC 3세기 즈음에 다양한 학파의 사상을 기록하고 있는 『여씨춘추』에서 '농업을 높이는 것[上農]'에 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백성이 농사를 지으면 생산이 풍부해지며, 생산이 풍부해지면 옮기기를 신중히 하며, 옮기기를 신중히 여기면 그 땅을 죽도록 지켜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중략) 백성이 근본[농업]을 버리고 말단을 일삼으면 그 생산이 적어지니, 그 생산이 적어지면 옮기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옮기기를 쉽게 여기면 국가에 환란이 있을 때 모두 멀리 떠날 뜻을 가져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다.(『여씨춘추』 권26, 「上農」)

풍요로운 삶은 안정적인 생활에 기초하여 그러한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삶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작자는 농사를 지으며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하는 농민들은 거주지를 쉽게 옮기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쌀농사가 주를 이루는 동양의 향촌사회는 이동이 쉽지 않는 정착생활이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다. 봄에 씨를 뿌렸다가 수확하는 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농작물을 돌보면서 한 곳에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땅을 경작하는 농민의 마음에 착안한 부국강병책과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 예를 들면 농사의 적절한 시기를 빼앗는 토목이나 치수공사 또는 전쟁 등은 근본을 해치는 일로 자주 지적되곤 한다.

살고 있는 거처 옮기는 일을 신중히 한다는 것은 농업이 주는 정착성이란 특성을 반영해준다. 농업은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면서 살아가는 유목생활이나 땅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공업과는 다르다. 옮길 수 없는 땅에서 역시 옮겨 다닐 수도 없는 농작물을 보살피는 농부는 휘이샤오통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신체의 반은 땅에 박혀 있는 것과 같다." 특별한 이동없이 정착하며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비교적 친숙한 인간 관계망이 형성된다. 자신을 소개하기 위한 명함이 필요 없었던 사회였던 것이다. 아울러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가 중요할 수 밖에 없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오늘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혹은 젊은이가 노인에게

대해 공경스런 태도로 일상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였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관계는 혈연적 친밀성을 바탕으로 세대 간의 답습이 심화되었다.

가까운 사이를 뜻하는 친親자는 타인에 대한 간절한 마음상태, 그 중 “부모는 감정의 가장 지극한 자이므로 친이라고 말한다.”(『설문해자주』) 아울러 부모에 대한 그러한 자식의 간절한 심리는 효로써 표현된다. ‘명륜明倫’의 으뜸으로 부자의 친함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 『소학』에서 잘 정리하고 있듯이 효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닭이 우는 첫새벽부터 의관을 정제하면서 시작되는 부모에 대한 관심은 밤에 이부자리를 펴드리는 순간까지 한시도 멈추지 않는다. 부모 봉양에는 음식, 거처, 말씨, 용모 등 일상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효는 물질적 봉양을 넘어서 공경어린 정신적 마음이 더욱 본질로 여겼다. “오늘날의 효는 봉양할 수 있느냐를 말하는데, 개나 말의 경우도 모두 기름이 있으니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구별이 있겠는가?”<sup>12)</sup> 애초부터 효에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고, 여기서 봉양이 주는 의미를 “도에 따르고 윤리에 거스름이 없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효는 생존하고 있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 차원에서만 이해되기도 한다. 그러나 유가에서의 효는 삶과 죽음을 관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켜야 될 도덕규범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유가의 특징이 되기도 한다. 효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였던 공자는 다음과 같이 예에 기초한 변함없는 효를 강조한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고, 돌아가시면 장사를 예로써 하고, 제사지내기를 예로써 한다.(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평소에 효도하려는 마음을 사후의 장례와 제례까지 변함없이 이어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삶의 패턴을 죽음까지도 연장시켜 이해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율곡은 『성학집요聖學輯要』에서 ‘효경장’을 별도의 항목으로 설정하고 효의 범주와 기능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기도 한다. 여기서도 효가 생존해 계신 부모에 대한 섬김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뒤의 장례와 조상에 대한 제사까지 포함되는 폭넓은 범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가에서 이러한 효사상의 전제는 “나의 몸은 부모가 남긴 몸”임을 토대로 성립한다. 공자가 믿음직스런 제자였던 증자에게 말했듯이 “신체와 모발과 살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효경』)”으로 규정한다. 증자는 이를 “내 몸이란 부모가 남겨주신 몸이니,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행하되 감

히 공경하지 않을수 있겠는가?”(『禮記』「祭義」)라고 하여 부모와 자식이 한 몸임을 강조한다. 이처럼 유가에서는 '나의 몸이 부모의 몸'이라는 인식을 지녔으므로 쾌락이나 부주의로 신체를 손상시키지 않음은 물론이고, 흐트러짐 없는 일상의 모습이나 공직자의 충직한 생활 등이 모두 효라고 인식하였다.

삶은 물론 죽음까지도 관통하여 보려는 유가의 효 윤리는 끊임없이 맞물리는 연관 속에서 파악된다. 마치 안과 밖의 구별이 없이 연속되는 뫼비우스 띠처럼, 유가적 삶은 끝과 처음의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어짐의 연속성은 “임종에 어린이 방문은 좋은 일인가”라는 현실적 물음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의 방문이 환자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으로 밝혀져 그 효과가 입증되기도 한다.<sup>13)</sup> 이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조부모가 아들대신 자신의 정신을 이어갈 기대주인 손자를 찾아 자신의 존재의미를 재확인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런 본능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이처럼 효를 통해 삶과 죽음을 관통하고 과거의 조상에서 현재의 나로 다시 미래의 자손으로 이어진다는 시각은 유가의 연속적 사유의 일단을 보여준다.

한편, 유가에서 효는 여타의 규범보다도 우선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효는 유교의 가장 핵심덕목인 인仁을 행하는 근본으로 간주된다. 인은 그 자체로 효는 아니지만, 인은 사랑을 주로 하고 사랑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효제孝悌를 인을 행하는 근본으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부모와 자식이 성립되는 인륜의 출발점으로서 남녀[부부]의 분별이 있는 다음에 부자가 친해진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에게서 받은 동일한 기운이 통한다는 의미에서 동기同氣로 맺어진 형제관계 속에도 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효의 정신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다. 부부나 형제 등 가족관계에서 효의 가치는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는다. 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규범보다도 우선시 된다는 점을 다음의 사례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섭공이 공자에게 말했다. “우리 고을에 직궁이란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양을 훔치자 자식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공자가 답하였다.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이와는 다릅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줍니다. 정직함이란 바로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논어』「자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도둑질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정신은 사회적으로 볼 때 칭찬받을 만하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정직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섭공의 투철한 고발정신에 대해 은근히 자랑하였지만, 공자는 오히려 양을 훔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신고정신을 정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

자간에 서로 감춰주려는 마음이 인정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타의 도덕률보다 앞섰기에 부모의 잘못은 덮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동양의 전통에서 부자지간에 꼬치꼬치 따지는 것은 친밀감에 균열이 생겨 서로 소원해질 수 있으므로 자식 교육도 직접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었다. 부자간에 서로 숨겨주는 것을 도리어 올바른 행동으로 본 공자처럼, 유가에서는 인간관계의 멀고 가까움에 따라서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에 차등이 있다고 이해한다. 이 점에 있어서 약속을 이행하고 정직하게 언행하며, 공정하고 합리적 태도로 임하기를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서구사회의 윤리와 크게 대조적이다.

혈연에 기초한 효의 가치는 상례喪禮에서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유교의 사고 방식은 자기가 보기에 덜 친한 정도에 비례해서 애정의 양도 그만큼 줄어든다. 가장 큰 사랑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그 다음은 혈연관계에 의한 피의 농도가 친숙함 곧 사랑의 척도가 된다. 부모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피가 진하고 가장 자신과 가깝기 때문에 부모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여 복상기간도 가장 긴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손순이 늙은 부모 봉양을 위해 어린 자식을 땅에 파묻기까지 했다는 설화나, 병든 부모를 위해 넓적다리 일부를 잘라 바치는 할고割股와 손가락을 자르는 단지斷指 등 극단적인 방법의 효가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를 향한 극단적인 효심은 과거에는 정려문을 세우는 등 표창의 대상이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유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어두운 그늘이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효는 유가의 가장 근본 덕목인 인의 실천적 기반이자 대대손손 이어지는 인간다움의 원천으로 흔들릴 수 중심축이었다.

### △ 순환적 연계성에 대한 인식과 확충윤리

우리는 농경사회의 토대인 정착성이 가족에 대한 중시로 이어졌고 효는 그것을 관통하는 덕목임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혈연적 연대감에 기초한 효 윤리는 가족윤리 수준에만 머무르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이타적인 행위나 사해동포주의로 확산되는 보편적 인간애를 주장하는 유가의 논리는 한계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집안에서 효도하고 화목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식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혈연이나 지연 등 연고주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에서는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대한 친밀감, 공경심, 사랑의 마음, 동정심 등을 보편화하고 당위화하며, 이것을 확충하려는 노력에서 사람다운 행위가

나오고 사회 윤리가 갖춰지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효 윤리의 확산은 자연계의 순환질서를 체득해왔던 농경문화와 긴밀히 연관되면서 더욱 진작되었다. 농경을 통한 오랜 경험과 지혜는 순환하는 자연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는 일상적 삶이 유용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토대이자 믿음이었다. 하루하루의 순환, 매달의 순환, 매년의 순환을 창출해 주는 달력처럼 끊임없는 재출발과 반복으로 이루어진 질서 있는 연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변화하는 자연의 패턴에 순응하려는 사유는 동양에서 자연과 인간의 소통기제이기도 하였다. 맹자는 그러한 연속을 유가의 이상적 통치인 '인정仁政'으로 보면서 다음과 같이 친애의 감정적 확충을 요구한다.

내 노인[부모]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아이를 아이로 사랑해서 남의 아이까지 미치면 천하를 손바닥에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老吾老, 以及人之老; 幼吾幼, 以及人之幼. 天下可運於掌." 『맹자』「양혜왕」)

위의 인용문은 패도를 꿈꾸던 제선왕을 일깨우면서 맹자가 했던 말이다. 예전에는 종을 새로 주조하여 완성되면 짐승을 잡아 틈새를 바르는 의식[鑿鍾]을 거행했는데, 제선왕은 눈앞에 아무 죄도 없이 벌벌 떨며 끌려가는 소를 보고 차마 볼 수 없어서 양으로써 바꿔 시행하라고 명했다. 맹자는 '군자가 푸줏간을 멀리하는 심정'으로 소대신 양으로 대체하여 짐승에게도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의 단서에 주목한다. "은혜가 금수에게까지도 미칠수 있는데 공로가 백성에게 이르지 않음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따라서 맹자는 나의 부모를 섬기고 자제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타인의 부모와 자제를 대한다면, 특히 일정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치한다면 진정한 왕이 될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맹자의 논리는 부모 섬김[親親]에서 백성 사랑[仁民]으로, 다시 동물 사랑[愛物]으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런 마음의 확충이라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것처럼 부모→백성→만물로 확충되는 관점은 주희의 다음 주석에서 분명해진다.

골육의 친척은 본래 하나의 기를 같이 하였으니, 또한 다만 남들과 같은 부류일 수 없다. 그러므로 옛 사람들은 반드시 친척에게 친함으로 미루어 백성을 사랑함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를 미룬 다음에 만물을 사랑함에 미치니, 모두 가까움으로부터 멀어 미치고 쉬움으로부터 어려움에 미친 것이다.(『맹자』「양혜왕」)

보편애를 주장하는 과도한 타자 지향적 삶은 때로는 감당하기 버겁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삶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로서 부담스러울 때가 많다. 따라

서 맹자와 같은 이는 목자의 겸애兼愛설과 양주의 위아爲我설을 비판하면서 공자의 학설이 보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바로 이러한 차등적 정감과 그를 기반으로 확충하는 윤리관이 유가의 장점이자 역사에서 오랜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같은 기운을 나눈 가까운 친척으로부터 점차 주변으로 확대되는 유가의 윤리관은 잔잔한 연못에 돌을 던질 때 퍼져나가는 파장과 비슷하다. 어느 곳에 던지느냐가 차이일 뿐 파장은 밀려날수록 더 멀어지고 얕아지게 마련이다. 웨이샤오통은 '차등순서의 틀[差序格局]'이란 글에서 그러한 미묘한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예리하게 파악하고 있다.

중국사회의 구조 자체는 서양의 틀과는 다르다. 우리의 틀은 한 단 한 단이 분명한 뿔감뿔뿔이 아니라, 마치 돌덩어리를 던지면 수면 위에 발생하는 동그라미가 밀어내는 파문과 같다. 모든 개인들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에서 만들어지는 원의 중심이 된다. 동그라미에 의해 발생하는 파문의 범위와 영향은 관계를 발생한다. 그러므로 저마다 특정한 때나 장소에서 움직이는 동그라미는 반드시 서로 같을 수 없다.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서양이 눈에 보이는 뿔감뿔뿔처럼 장작개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인간관계의 분명한 틀이 보인다면, 동양은 개인과 집단사이에 그러한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즉 동심원 모양의 밀어내는 파문, 혹은 생육과 혼인으로 구성된 연계이기에 계속 발전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무궁한 사람들을 그 속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신축성伸縮性이 풍부한 연계'는 효를 모든 가치보다 우선시하는 유가의 차등적 정감을 보편적 인간애로 확산시키는 촉매역할을 한다. 우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효경』의 다음 구절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공자는 말씀하였다. 군자가 부모를 섬김이 효성스러우므로 군주에게 충성으로 옮길 수 있고, 형을 섬김이 공경하므로 상관에게 순응으로 옮길 수 있고, 집에서 거처함에 잘 다스려지므로 다스림을 관청에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행실이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름이 후세에 세워지는 것이다.(『효경』)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군주에 대한 충성으로, 또한 형제를 섬김이 연장자에 대한 순응으로 이어지면서, 굳이 벼슬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그 명성에 손상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효도, 공경, 자애와 같은 가정윤리의 외연적 확대는 자신을 둘러싼 국가사회라는 공동체와의 원만한 연속적 관계로 보았

던 것이다.

유가의 이와 같은 확충윤리는 효라는 시간적 연속 축을 기점으로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주변으로 점차 확대되어 가는 동심원 구조를 지닌다. 그러한 확대과정에서 제시된 중요한 윤리덕목 가운데 하나가 타인을 나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려는 '서(悌)'이다. '서'는 남의 이익을 나의 이익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는 공정한 마음가짐, 즉 호혜성의 원칙을 뜻한다. 그렇다면 유가의 윤리는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에 대한 효를 우선시하는 차등적 정감과, 그를 넘어서 도덕규범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두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이어짐의 연속을 위한 도덕주체의 정립

유가에서 효가 중요한 덕목으로 간주되는 현실적 이유는 가정에서 배운 효도가 모든 사회관계로 확대되는 기초이므로 가족을 통해 인간답게 행동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즉 효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는 차원을 넘어서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타인의 친절에 반응하며, 개인의 이익보다 타인의 이익, 공익을 중시하는 것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나 이미 살펴보았듯이 혈연에 기초한 효를 중심으로 그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논리에는 부모와 배우자, 혹은 효와 충의 미묘한 갈등처럼 그러한 연계가 부자연스러운 원리적 측면에 그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효를 토대로 점진적 확대를 도모하는 유가의 신축성이 풍부한 연계망 안에서 모든 가치의 중심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공익을 위한 헌신 여부는 사회적 유도의 측면도 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사랑을 말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종교를 근거로 한 사랑은 인간 밖의 절대자를 매개로 삼는 까닭에 그것은 차별이 없는 보편적이요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유가에서 인의 바탕을 이루는 사랑의 친밀한 감정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인정에 기초를 두므로 친소親疎에 따른 상대적인 사랑이다. 따라서 유가에서는 선택의 중심에서 있는 자신을 경계하면서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라[克己]", "자신에게 돌이켜라[反求諸己]" 등 자기반성형 사고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애초부터 차등적 사랑에 기초하였지만, 그를 넘어서 보편적 윤리로 확충하는 것을 바람직한 인간다움의 구현으로 보는 유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로 가족주의만의 단절 현상으로 기울기 쉬운 차등적 윤리관을 보완하려는 노력은 유가적 소양을 지닌 지식인들의 공통적 노력이었다. 올바른 유지를 유지하기 위

한 시중時中의 강조가 그러하다. 여기에는 산술적 통계의 중간수치가 아니라 상황에 따른 최적의 선택을 취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흔히 유가는 융통성 없는 반듯한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는데 그런 강직함은 꺾이기 쉽다. 지나친 절제는 무절제와도 통하므로 “고통스럽게 지키는 절개는 올바른 것이 아니다.” 진정한 올바름이란 상황에 따른 적합성과 지속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정보다는 중中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일상에서 시중의 노력은 자신의 인격을 닦아나감과 동시에 객관적 이치를 탐구해나가는 앎과 행위의 조화로운 합일로 이어진다. 그 과정에서 남들이 단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라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수없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sup>14)</sup>

한편 유가에서는 “그럴만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끼어들지 않는다”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쓸데없이 간섭하지 않으려는 의미도 있지만, 자칫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보신주의로 비쳐질 수도 있는 그러한 사유는 유교의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준다. 그러나 우주적 차원까지 연계된 관계망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인식에서 볼 때, 자신의 모든 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군주는 군주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모는 부모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그러한 사회를 지향하기에 우리네 전통에서 가화만사성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유가의 명분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연계되어 있고, 또한 안정된 분위기 속에 지속한다는 전제가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오늘날처럼 변화의 간격이 빠르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를 위해 의미있다는 자각이 부족하다면, 동양적 사유의 특성으로 간주되어왔던 전체의 일부로서 부분을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제자리에서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아가려는 맹자는 대장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담담하게 토로한다.

천하의 드넓은 곳에 처하고 천하의 올바른 자리에 서서 천하의 큰 도리를 행한다. 만약 뜻하는 바를 얻는다면 주변과 더불어 실천하고, 뜻하는 바를 얻지 못했다면 혼자서라도 그러한 도리를 실천한다. 부귀에 빠지지 않고, 빈천에 흔들리지 않고, 억압에 굴복당하지 않는 이런 사람을 대장부라 할 것이다.(『맹자』「등문공」)

# 『논어』에서 인성교육의 길을 찾다

이천승(성균관대학교 교수)

## 2강 : 의義,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

### 1. n분의 1의 권리주장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 앞에서 조금의 양보도 없는 것이 당연한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이다. 일이 없을 때는 모두 좋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당면한 현실 앞에서 냉혹해지는 측면이 있다. 차를 운행하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일으켰을 경우에 웬만해서 양보하는 일은 없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설령 자신이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은 우겨놓고 본다. 경우의 수만 잘 조합하다보면 100%의 과실치사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 발만 나가도 약육강식의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한 모습이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근거 없는 폭로 역시 마찬가지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인가?

한국을 포함한 자유주의 국가들이 지향하는 자유주의에 따르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행복과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당연시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가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보기 때문이다. 개인이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그 인생설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는 존재로 보는 측면에서는 법에 따라 처리되기를 원한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되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차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대로' 라는 말에 상처받는 경우가 흔한 것도 사실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기관이나 집행 또는 심판하는 관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범법행위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나듯 위장전입이나 탈세혐의와 같은 위법행위들이 역대 정권마다 반복되는 것은 결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몰라서 그랬다거나 내가 직접 한 일은 아니었다는 식의 답변은 구차스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법을 아시는 자들이 법과 위법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가까운 친족 간의 경우도 결코 예외는 아니다.

개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자본주의는 개인사에 가급적 간섭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려고 한다. 가령 종중재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누구의 편을 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평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다가 토지보상 등 우연한 계기로 종중명의를 돈이 나왔을 경우, 조상승배가 약해진 오늘날에 있어서는 웬만해선 양보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과거 재산권의 분배과정에서는 장자 우선의 차등적 분배가 일반화되었다. 아들이 없어 양자를 들었더라도 장자를 염두에 두는 것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줄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그에 따른 비용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장자중심의 종법宗法 질서를 유지해온 동양의 오랜 전통이자 이어짐의 연속적 바람이 현실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따라서 선대의 재산은 쪼개고 나눠먹는 것이 아니라 혈연의 중심으로 모아주고 힘을 살려주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었다.

물론 한 집안을 이어나가기에는 너무도 역부족이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경우에는 또 다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너무도 고지식하게 자신의 권리를 n분의 1로 계산하여 나누는 산술적 평균에 익숙한 듯하다. 남녀노소 불구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이 그러한 경우의 수에 해당되면 일단은 한 발 내밀고서 자신의 권리주장에 충실한 것이다. 그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많은 적든 사양하는 마음이 손해 보는 것이라는 개인의 권리의식이 깔려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 과정은 현대 자유주의의 중요한 덕목임에는 분명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주장할 때 개인의 권리는 사회의 공동선을 해치는 쪽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다. 아울러 모두가 원하고 추구할 가치 기준이 무엇이냐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적어도 우리네 전통에서 볼 때 “어른의 밥 한공기와 애들의 밥 한공기가 같을 수는 없다.”

## 2. 명분은 체면치레인가?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는 현대인들은 그러한 자기주장이 실질적인 것이고 허황되게 명분을 앞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아울러 유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유학자, 특히 조선조 성리학자들이 오늘날 한국인의 의식 속에 잠재된 명분과 형식을 앞세우는 폐단을 조장했다는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 없어도 있는 체 하고 자신을 필요이상으로 과시하는 등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체면치레가

그러한 현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생각들은 도덕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사회 변화를 가로막는 경직된 풍조며, 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유연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사고와 행동을 억압해 나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은 그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지 않은 채 현대인들이 유학과 전통사상을 바라보는 선입관으로 자리하기도 한다. 물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당시 집권 계층의 무능력, 또는 한말 일제강점기에 무력을 앞세운 제국주의의 침략 앞에 맥없이 무너져버린 망국의 책임에서 기득권층이었던 유학자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유학이 우리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으로 손꼽히는 명분론이 과연 유학사상의 본질이었을까? 우선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명분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공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서 명분을 바로 잡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한다.

자료가 “위나라 임금이 선생님을 맞이하여 정치를 하려고 하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 하자, 공자는 “반드시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다. 자료가 “이토록 선생님은 실정을 모르십니다. 어떻게 바로 잡히겠습니까?” 라고 하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촌스럽구나. 유由야! 군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는다.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고, 예약이 일어나지 못하면 형벌이 알맞지 못하고, 형벌이 알맞지 못하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군자가 이름을 붙이면 반드시 말할 수 있으며, 말할 수 있으면 반드시 행할 수 있는 것이니, 군자는 그 말에 구차함이 없을 뿐이다.

공자는 자신의 조국인 노나라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자신의 이상을 적극 토로하고 현실화 방안을 모색한다. 위의 내용은 공자가 당시 초나라에서 위나라로 돌아오는 길에 제자인 자로와 대화이다. 자로는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이자, 평소 “진리 앞에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지침도 있었던지라 그의 생각은 거침없다. “위나라 임금이 만일 선생님에게 벼슬을 주어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신다면 선생님께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주周 나라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제후들끼리의 패권다툼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펼칠 것인가 궁금했던 것이다. 부국강병책을 기대했던 자로와는 달리 공자는 담담히 ‘정명正名’을 말한다.

정치는 인륜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나로 하여금 위나라에서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아버지와 아들과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름을 바르게 하여 이름과 실상이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공자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성급한 자로는 즉시 대꾸한다. “선생님! 실정을 모르십니다. 급변하는 현실에서 조금씩 힘쓸 것이 있으니, 오직 오늘날에 마땅히 행할 것을 우선적으로 취하여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찌 반드시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을 먼저이겠습니까?” 제자의 반박에 직면한 공자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치에 의심스러운 것은 속단하지 말고 잠시 보류하는 것이 군자다운 행위라면서 제자의 경솔함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명분 바로 세우기’에 담긴 자신의 의도를 자세히 밝힌다. 짙막한 대화와 경구 위주의 『논어』에서 이 단락처럼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차분히 기록하고 있는 구절은 그리 많지 않다. 공자는 차분히 말한다.

내가 먼저 이름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어찌 실정을 모르는 것이냐? 이름이란 모든 교화의 근원이 되는데, 한번 바르지 못하면 그 폐단이 말하지 못할 정도이다. 이름이란 그 실상을 이룬 것이다. 만일 이름이 한번 바르지 못하면 말하는 사이에 막혀서 말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오,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어찌 정치를 하겠는가? 그러므로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일을 이루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얼마다 거꾸로 되어 차례가 없을 것이고, 어긋나고 다투어 조화롭지 못하여 예와 악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와 악이 일어나지 못하면 정치를 하는 것이 모두 사사로운 뜻이어서 거꾸로 행하고 거슬러 베풀어서, 형벌이 악한 사람에게 가해지지 않아서 맞지 않을 것이다. 형벌이 맞지 않으면 백성이 착한 일을 하고자 하더라도 마침내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악한 일을 하고자 않더라도 피할 길을 알지 못할 것이니, 장차 어느 곳에 수족을 놓겠는가? 이름이 한번 바르지 못하면 폐단이 드디어 이에 이를 것이니, 이름을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군자가 정치를 할 때,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름을 지으면 반드시 맞게 하여 말하는 것이니, 만일 말을 못할 것 같으면 감히 이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말이 순조롭지 않으면 일이 이루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면 반드시 순조롭게 행하는 것이니, 만일 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감히 말을 못할 것이다. 반드시 말할 만하고 반드시 행할 만한 것은 감히 구차스럽게 하지 않는 도이다. 군자가 이름에 맞게 하는 말에 힘써 실상에 마땅함을 구하여 구차한 바가 없을 따름이니, 이름에 한 일이라도 구차하면 나머지가 다 구차하고 이름에 한 일이라도 구차하지 않으면 나머지가 다 구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를 할 때 반드시 먼저 이름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어찌 실정을 모르는 것이냐?

우리는 공자가 제시한 ‘이름 바로 세우기’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제대로 일

처리하기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점과 사회 안정의 기초라는 생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즉 실질에 걸맞은 이름이 있어야만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도덕적 행위와 법의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제나라 군주인 경공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하여 물었을 때도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었다.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입니다.” (『논어』「안연」)

군주는 군주다워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서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집 안에서조차 마찬가지다.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가 나는 못하지만 너는 잘하라고 강요한다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들이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자기편의적 태도는 결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내 탓’임을 강조하는, 어찌 보면 당연한 자세를 공자는 ‘이름 바로 세우기’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내세우기보다는 내가 실질에 맞게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려는 것이다.

### 3. 사람을 살리는 어진 정치

‘인정仁政’, 즉 어진정치란 바로 남에게 차마 모질게 하지 못하는 마음을 미루어 의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이다. 어느 날 맹자가 제나라 선왕宣王을 만났다. 선왕이 당상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혼종鬮鐘 의식에 사용할 소를 끌고 임금 앞을 지나갔다. 벌벌 떨고 있는 소를 본 선왕은 말하였다. “그 소를 놓아주어라. 사지로 끌려가면서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죄 없이 끌려가는 소가 너무 불쌍하여, 양으로 바꾸어 혼종하게 한 것이다. 혼종은 큰 종에 소의 피를 바르는 국가의식으로, 제사를 위해 키운 귀한 소를 제물로 쓴다. 하지만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다. 왕이 소가 아까워 양으로 바꾸었다는 비난이 들끓었다.

맹자는 왕이 소를 양으로 바꾼 것은 소가 아까워서가 아니라, 불쌍했기 때문이라고 위로하였다.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남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왕의 은혜가 금수에게까지 미쳤는데, 그 효과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은 것은 유독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이 지금 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왕이 은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하찮은 미물은 불쌍해서 놓아주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은 왜 돌보지 않느냐는 질타였다.

눈앞에서 떠는 소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은 곧 내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다. 왕도 인간이므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늘 눈앞의 가족을 걱정하고 사랑한다. 만약 그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을까? 백성들을 가족처럼 여긴다면, 소를 불쌍하게 여기듯이 백성들을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 맹자는 문왕이 베푼 정치를 들어 인정의 사례를 설명하였다.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홀아비[鰥]라 하고, 늙어서 남편이 없는 것을 홀어미[寡]라 하며, 늙어서 자식이 없는 것을 무의탁자[獨]라 하고, 어려서 부모가 없는 것을 고아[孤]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천하의 곤궁한 백성으로서 하소연할 곳이 없는 자들입니다. 문왕은 정사를 펴고 인을 베풀되 반드시 이 네 사람을 먼저 하였습니다.”(『맹자』「양혜왕하」)

맹자보다 170여 년 앞서 태어난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愛人]’이 인仁이라 하였다. 애인愛人의 대상은 나의 위치에 따라 그 범위와 규모가 달라진다. 그들은 주위의 몇몇 친구들에 한정될 수도 있다. 내가 만약 CEO라면 조직의 구성원일 수도 있다. 내가 국가의 지도자라면 전 국민이 애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육체로만 보면 사람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뱃속의 아이와 엄마가 탯줄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인 것처럼, 인으로 인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일체적 관계가 사람다움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성학에 뜻을 둔 자는 인을 실천하여 사람다움의 본질을 완성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다. 특히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어진마음은 부모자식 사이에서 드러나는 자애와 효성스런 마음에서 쉽게 확인된다. 인륜관계인 사회에서는 사람이 하나로 연결된 일체적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곤 한다. 하지만 천륜관계에서는 ‘우리’라는 하나 된 관념이 남아있어 사람다움의 근거인 본심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천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무한한 믿음과 사랑을 점차 인륜의 최대 범위인 천하까지 확대하는 것, 그것이 정치다.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왜 정치를 하지 않는지 물었다. 공자는 “『서경』에 효를 말하면서 ‘효도하며 형제간에 우애하여 정치에 베푼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다. 어찌하여 벼슬에 나아가는 것만이 정치하는 것인가?”(『논어』「위정」)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치는 천륜에서 드러나는 자애로움[慈]이나 효성스러운 마음[孝], 우애하는 마음[弟]을 매 순간 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미루어 천하로 확대하는 것일 뿐이다.

#### 4. 의로운 이익의 추구

유가에서는 이익 자체를 거부한 것일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덕성완성에 뜻을 둔 자는 일찌감치 이익과 인연이 멀고 고로苦勞운 생활을 감내해야 한다. 게다가 유학은 자본주의 경제 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어쩔 공존이 불가능한 가치일 수 있고, 유교문명권 아래에 있는 동아시아는 경제발전 자체가 더디거나 없었어야 옳다.

그런데 이익은 공자도 스스로 밝혔다고 고백한 바 있다.

부유함을 억지로 구할 수 있다면 내 비록 채찍을 잡는 천한 사람의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 취하겠다.(『논어』「술이」)

경제적 풍요, 높은 지위 등은 사람이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고, 객관적 한계를 뛰어넘어 억지로라도 이를 구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천한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공자의 선언은, 이익의 추구가 덕의 완성에 뜻을 둔 군자도 지니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임을 말해준다. 중요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이익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기에 앞서, 반드시 하나의 전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라[見利思義](『논어』「헌문」)

이로움을 나타내는 '이利'는 본래 '벼 화禾'자와 '칼 도刀'가 결합된 문자로, 곡식 따위를 칼로 벤다는 뜻이다. 『설문해자』에서는 곡식을 베는 칼날의 날카로움에서 '날카롭다, 빠르다'의 뜻이 나왔다고 풀이하고 있다. '칼로 벼를 베는 것'이나 '날카롭다는 것'은 수확과 함께 소유가 많아지므로 '이익'의 뜻으로 발전되었다.

반면 '의義'는 희생물로 바친 '양羊'을 신의 뜻에 맞도록 톱 모양의 칼[戈]로 알맞게 자르는 것을 형상하여, '올바르다'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발음이 같은 '의宜'자도 도마[俎] 위에 고기를 올려놓고 적절하게 자르는 모양을 상형하므로, '적절하다, 마땅하다'는 의미로 통용되기도 한다. 혹자는 고대에 진실과 거짓을 판별할 때 영험한 양을 사용하였으므로, 판단의 기준인 양羊과 무력과 왕권의 상징인 삼지창[戈]을 소유한 모습을 형상한 것으로, 현명함과 정치적 힘이 조화된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사회나 공동체는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의 무대이자, 덕을 완성하는 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파괴하고 자기 한 몸만 혹은 자기 가족만, 아니면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중시하고 이익을 탐하면, 관계망이 끊어지고 이익이 편중되어 불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그것은 의롭지 않은 이익이다. '의로운 이익'은 얻을 것을

보면 타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서로가 공생할 수 있는 올바른 기준인 '의'를 생각하는 것이다. 의는 나와 너, 나와 우리, 나와 공동체가 표면상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내면의 덕성으로 인해 개체는 원자화된 개체가 아니라 일체로 여기는 인仁을 바탕으로,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적절하게 정의되는 도덕적 기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는 이익 앞에 서더라도 먼저 의로운지 아닌지 고민하고 따지며, 손해를 보더라도 보다 큰 이익大利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부귀와 같은 이익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싶은 욕구이지만, 정당한 방식으로 얻어진 이익이 아니라면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의義와 이利의 합일, 공公과 사私의 합일, 도덕과 경제의 합일을 완성하여, 올바른 이익추구의 경향이 사회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 유학의 궁극적 이상이었다.

## 5. 공자의 꿈과 지식인의 책임의식

전통시대에 명분을 통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주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모든 관료층에서 비롯된다. 어렸을 때부터 유가경전을 익혀 유교적 소양을 갖춘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공동의 책임의식을 강하게 부여받는다. 오늘날과 달리 조선조는 유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관료가 곧 학자이며, 학자가 곧 관료인 사회임을 염두에 두어두어야 한다. 사회지도층의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보통 부와 권력,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논어』에서 지도층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말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증자가 말하였다. “선비는 넓고 굳세지 않을 수 없다. 짐이 무겁고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으로써 자기의 짐으로 삼으니 또한 무겁지 아니한가? 죽은 뒤에라야 끝나니 또한 멀지 아니한가?”

(曾子曰 士不可不弘毅니 任重而道遠이니라 仁以爲己任이니 亦亦重乎아 死而後已니 亦亦遠乎아(『논어』「태백」)

천하의 넓은 집에 거처하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함께 도를 행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하여, 부귀가 마음을 방탕하게 하지 못하며, 빈천이 절개를 변하게 하지 못하며, 위무가 지조를 굽게 하지 못

하는 것, 이를 대장부라 이르는 것이다.

(居天下之廣居하며 立天下之正位하며 行天下之大道하며 得志하여늘 與民由之하고 不得志하여늘 獨行其道하며 富貴不能淫하며 貧賤不能移하며 威武不能屈이 此之謂大丈夫니라 (『맹자』「등문공하」)

공자는 사회 구성원 각자 자기자리에서 평안하게 거처하며 가족처럼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었다. “노인들이 편안하게 노년의 삶을 즐기게 하고, 벗들이 신뢰감을 지니고 더불어 생활하게 하며,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다.”(『老者安之, 朋友信之, 少者懷之』) ‘꿈’은 상상으로 그칠 때가 많다. 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뒷받침되면 현실이 되어 나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공자는 인을 묻는 안연에게 “하루만이라도 자기의 사욕을 극복하고 상황에 맞는 예를 실천하면 천하가 어질게 될 것”(『논어』「안연」)이라고 하였다. 덕의 확립과 적절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언급이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는 작고 사소한 일이 매우 큰일을 일으킨다는 ‘나비효과’를 발표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단순한 나비의 날갯짓이 날씨를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처럼 세상을 변혁시키는 원동력은 작고 사소한 행동에서 비롯된다. 흐르지 않는 바다를 썩지 않게 하는 것도 3%의 염분이다. 이처럼 세상을 맑게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각자의 일상에서 맑음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한 사람의 실천이 하루 이틀 지속하여 신뢰와 사랑이 상식이 될 때 이상사회는 바로 눈앞에 펼쳐질 수 있다.

지금 서구는 자신들이 추구했던 근대적 가치를 폐기하고 다양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면의 맑은 인성을 신뢰하고, 믿음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세상에 대한 이상을 품었던 공자의 꿈은 분명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상상의 기회를 준다. 퇴계·율곡·다산과 같은 대유大儒들이 꿈꾸었던 유학적 이상사회가 우리사회에 온전히 실현되는 날을 상상해 본다.

# 『 』에서 인성교육의 길을 찾다

이천승(성균관대 교수)

## 3강 : 예禮,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문화

### 1. 희망과 계승의 문화

#### 1) , 어른의 시작

일상과 현실을 중시하는 유교에서 예는 삶의 전반에 걸쳐 있다. 그 중에서도 관·혼·상·제는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매듭짓는 통과 의례이다. 오늘날 치러지는 성인식·결혼식·장례식·추도식은 전통시대의 관례·혼례·상례·제례와 다를 바 없다. 성인식이나 결혼식은 그 의식을 통해 주어진 삶을 소중히 살아가려는 마음을 다짐한다. 장례식이나 추도식은 그 의식을 통해 망자를 떠나보내는 슬픔을 다하고 생전의 고인을 추억하며 기린다. 예나 지금이나 형식은 조금 변했어도 삶의 중요한 과정마다 자리한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 유교의 '의례[禮]'가 '의식[式]'이란 명칭으로 옷을 갈아입었을 뿐이다.

유학을 근본으로 한 조선시대의 일반적 예법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근거하고 있다. 성리학의 집대성자인 주자朱子는 중국의 오랜 예법인 『주례周禮』를 바탕으로 시대에 맞는 풍속을 제정했다. 『주자가례』는 변화된 풍속을 반영하여 관·혼·상·제의 네 단계로 예법을 정비했다. 조선의 예법은 계층이나 지방에 따라 절차가 달랐다. 또한 『사례편람四禮便覽』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예법으로 변용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자가례』를 뿌리로 했다. 특히 예상과 달리 통과 의례인 관례冠禮가 혼례보다 중시되기도 했다.

오늘날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총각이라고 부른다. 총각은 관례를 치르기 전 머리를 양쪽으로 묶은 미성년자를 뜻한다. 관례는 15세~20세 전후에 실시했다. 비록 미혼일지라도 관례를 치르면 어른으로 인정받았다. 남자가 관례를 치렀다면 여자는 비녀를 꽂는 의식인 계례笄禮를 행했다.

전통적인 관례는 단순히 어른이 되기 위한 통과 의식의 의미를 넘어선다. 유목생활을 했던 서양문화권의 성인식은 그에 적합한 체력과 강인함이 강조되었다. 풍성한 초목을 찾아 이동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필요했다. 반면에 농경문화에 뿌리를 둔 동양의 문화는 계절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지혜가 요청되었다. 그와 함께 오랜 경험을 통해 변화를 예측하여 준비하는 연장자에 대한 공경심도 상대적으로 강했다. 때문에 관례를 행할 때 덕을 갖춘 연장자를 주빈으로 모시고 진행했다.

관례나 계례는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어른이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느끼고 책임감 있는 말과 행동을 각인하는 계기였다. 따라서 예를 주관할 사람을 신중히 정하고, 세 차례 모자를 바꿔 쓰는 삼가三加之 예를 올린다. 근본을 잊지 않고, 관직에 나가 군주를 섬기며, 신을 섬긴다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모자를 세 번 바꿔 쓴다. 그와 함께 이름을 대신한 자字를 부여받았다. 여자 또한 계례와 함께 자를 받았다.

요즈음은 만 20세가 되는 해의 5월 셋째 월요일에 성년식을 치른다. 관례의 형식을 부분적으로 이은 것이다. 그런데 성년식을 청소년기로부터 해방된 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간과하는 일도 있다.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 아니다. 공자는 성인成人의 의미를 묻는 제자에게 완성에 가까운 사람의 본보기를 제시한다.

장무중의 지혜, 공작의 탐욕 없음, 변장자의 용기, 염구의 재주를 갖추고 예약으로 문채를 덧보태면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성인이란 어찌 반드시 그러하겠는가? 이익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며,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에 평소의 말을 잊지 않는다면 이 또한 성인이라 할 수 있다.(『논어』 헌문)<sup>15)</sup>

인격 완성의 방법으로 공자가 제시한 성인의 길은 유학의 이상이기도 하다. 그 길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모색하고, 염치를 알아 욕망의 나락에 빠지지 않으며, 꺾이지 않고 나아가는 실천적 삶과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재능을 키워나가는 길이다. 여기에 절제와 조화의 정신인 예약까지 곁들여야 한다. 즉 성인은 지혜·염치·용기·재능·예약 등 모든 덕목을 갖춘 존재이다.

공자는 한 발 물러나 차선책을 제시한다. 이익을 보면 그것이 의로운가를 생각하는 마음,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평소의 소신을 지켜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마음, 오래된 약속은 물론이고 평소에 했던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곧, 충실과 신뢰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또한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인 성년식에서 인격의 완성을 위한 원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 꽃이나 향수보다 더 진한 향기를 피우게 될 성숙한 자신을 그리면서 말이다. 형식은 바뀌었어도 어엿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의

식을 느끼고 그 역할을 다짐하는 관례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 2) 인륜의 출발

청춘남녀의 만남을 아름답고 지속적으로 만드는 제도가 결혼이다. 오늘날의 결혼은 개인 간의 만남과 행복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하지만 전통사회의 혼례는 두 가문 사이의 사회적 결합과 대 이음에 더 비중을 두었다. 두 남녀의 결합은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낳아 대를 이었기에 인륜지대사라고 했다. 두 남녀의 결합은 출산을 통해 부모와 자식이라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낸다. 오륜의 첫 번째인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윤리인 부자유친父子有親도 부부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인륜이 형성되는 시작점으로서 혼인은 유교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의례로, 엄숙한 절차가 뒤따랐다.

혼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친다. 혼례 이전의 준비단계, 혼례의식인 대례大禮, 혼인이 끝난 후 신부가 신랑 집으로 들어가 치르는 후례後禮로 구분된다. 이러한 절차에는 두 사람이 하나로 맺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중매인을 통해 남자 측에서 청혼하고 여자 측에서 받아들이는 혼담을 거친다. 이어 혼인을 맺겠다는 표시로 남자 측에서 예비신랑의 생년월일을 적은 사주단자를 보낸다. 빨간 보자기에 쓴 정성어린 납채納采를 받은 신부 집은 혼인 날짜를 정해 남자 측에 보내는 납기納期를 행한다.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신랑 측에서 앞날을 기원하는 예물을 함에 담아 보낸다. 납폐納幣라고 하는 이 과정은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 '함 사세요!'라는 시골벽적인 정취가 그 흔적이다. 이처럼 혼담이 오고간 후 사주를 보내는 납채, 혼인 날짜를 정하는 납기, 예물을 보내는 납폐 등 혼인준비 과정은 오늘날 약혼식 전후와 비슷하다.

그리고 본격적인 혼례에 앞서 조상을 모신 사당에 고하고, 부모의 교훈을 듣고 다짐하는 간략한 의식을 행한다. 이어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기러기를 직접 전달하는 전안례奠雁禮는 실질적인 의식의 출발이다. 기러기를 쓰는 것은 기러기는 새끼를 많이 낳고 짝을 잃게 되면 다른 짝을 다시 찾지 않기 때문이다. 즉, 전안례는 부부의 백년해로와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전안례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 인사를 하는 교배례를 행한다. 혼례는 개인보다는 두 가족, 혹은 두 가문 간의 만남을 중시하기에 이때 비로소 신랑과 신부가 만난다. 초례상을 중앙에 두고 신랑은 동쪽에, 신부는 서쪽에서 마주 서서 주례의 진행에 따라 의식이 진행된다. 서로 공손히 큰절을 하고 술을 나눠 마시는 근배례를 행한 뒤 합궁함으로써 혼례는 일단락된다. 이때 표주박을 사용한다. 그것은 원래 하나인 박을 반으로 쪼개 나누었는데, 혼인을 통해 다시 하나로 합친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끝으로 신부 집에서 혼례를 마친 후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온다. 이후 신부가 시부모에게 인사하는 후례가 행해진다. 이때 신부는 시부모와 시댁 어른들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예를 위해 폐백을 준비해온다. 시부모와 시댁식구에게 폐백을 올리며 절을 하는 의식이 끝나면 시부모는 신부를 위해 큰 상을 베풀면서 위로한다. 그리고 사당에 혼인의 전 과정이 끝났음을 알리는 고유제告由祭를 끝으로 모든 예식은 마무리된다. 예식의 처음과 끝에는 항상 조상에 대한 인사가 있었다.

오늘날의 혼례는 화려하고 준비과정 또한 길다. 그에 비해 예식은 매우 소략하다. 과도한 혼수도 문제다. 『소학』에는 “혼인에 재물을 논함은 오랑캐의 도다.”라는 문중자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재물이 아닌 덕을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마광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한다. “무릇 혼인을 의논함에 마땅히 먼저 그 사위와 며느리의 성품과 행실 및 가법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이요, 다만 그 부귀만을 흠모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재물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준다.

전통 사회의 혼례는 이렇게 선남선녀의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혼례는 조상에 대한 제사와 자손 번창이라는 인류의 바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혼례는 이성異性の 이성二姓 결합을 통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잇는 출발이란 점에서 여러모로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 2. 추모와 공경의 문화

### 1) , 죽은 이에 대한 애통

취임식에 임하는 대통령의 첫 공식일정은 순국선열이 잠들어 있는 현충원의 참배이다. 최근 여러 가지 한복차림으로 세계인의 관심을 모았던 한국의 여성대통령도 국립현충원 참배만큼은 검은색 정장으로 엄숙함과 차분함을 보여주었다. 앞 세대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순국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각오가 묻어난다. 조국에 헌신했던 선열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도 있다는 감사의 마음이다. 국내뿐 아니다. 외국 순방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나라의 국립묘지를 찾아 추모하는 것은 상대국의 전통에 대한 배려이다. 지도자가 보여주는 이와 같은 추모의 모습은 앞 시대를 계승하고 성실한 일처리를 기대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상징적 효과가 있다.

모든 문화권에서 보이는 이러한 의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리는 공자의 제자가운데 가장 듬직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인 증자의 짧은 한마디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대학』의 저자로 알려지기도 한 증자는 상례의 신중함과 제사를 통한 추

모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초상을 신중히 하고 멀리 있는 조상을 추모한다면[終追遠] 백성의 덕이 돈독해질 것이다.(『논어』「학이」)<sup>16)</sup>

종終은 끝나다, 다하다, 마쳤다는 뜻이다. 세상에 태어나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걷다가 마지막에 이르는 것이 종이다. 이어달리기에서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겨주듯 마지막은 다음 세대의 출발점이 된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다. 동양에서 마지막과 시작의 연계를 중시하여 시종始終보다 '끝과 처음'이라는 종시終始를 많이 쓰는 것도 그런 이유이다. 유가는 단절이 아닌 이어짐의 연속으로 삶을 관조한다. 증자가 삶의 마지막인 상례에서 신중함을 다하라고 당부한 것도 그 때문이다. 죽음은 삶의 단절이 아니다. 죽음은 그를 기억하고 먼 길을 떠나보내야 하는 남은 자들의 애달프고 슬픈 이별의 시간이다. 따라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삼가야 한다.

보이지 않으면 마음도 멀어진다[Out of sight, out of mind].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잊혀져간다. 상례는 제례로 이어진다. 제사는 평소 고인을 생각하는 마음, 특히 상례 때의 슬픈 마음을 되새기는 시간들이다. 매년 제사를 통해 주기적으로 고인을 추모한다. 상례는 죽은 자를 따르고, 제례는 산 자를 따른다. 상례는 죽은 자가 중심이고, 제례는 후손이 중심이다. 자신이 최고통치자라 할지라도 부모의 장례를 국장國葬으로 치를 수 없다. 하지만, 제사는 통치자의 품위에 걸맞게 지내도 국민들이 수궁한다.

또한 상례는 슬픔이 부족하고 의례가 넉넉하기보다는 의례가 부족하더라도 슬픔이 넉넉한 것이 낫다. 제례는 경건함이 부족하고 의례가 넉넉하기보다는 의례가 부족하고 경건함이 넉넉한 것이 낫다. 상례는 슬픔이 중심이요, 제례는 경건함이 중심이다. 공자가 예의 근본을 묻는 임방에게 걸치레 없는 진실을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中을 지향하는 예의 본질에서 볼 때 검소는 예의 지향점은 아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은 질박하고 검소한 것만 못하다. 부족함보다 지나침이 초래하는 피해가 더 크다. 반면에 상례와 같은 흥사는 완벽하리만치 잘 갖춰진 형식과 절차라 해도 차라리 한결같은 애통만 못하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 예를 조금 안다고 이것저것 챙기느니, 차라리 돌아가신 분을 애도하며 슬픔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증자는 초상의 신중함과 제사를 통한 추모의식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축이라 생각했다. 부모의 상례와 조상에 대한 제례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

라 민심의 향방이 달라진다고 말한다. 무슨 뜻일까? 아버지의 죽음은 청천벽력 같이 아찔하다. 눈앞이 캄캄해진다. 왈칵왈칵 쏟아지는 눈물에 손발이 떨리고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머리가 하얗다. 하지만 언제까지 낫 놓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애절한 심정을 연신 쓸어내리며 삼가 상례를 치르며 효성을 다해야 한다. 온갖 정성을 다해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보내드리는 그 모습은 살아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존경과 신뢰를 심어 준다. 그러므로 상례는 못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신종추원[愼終追遠]은 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선대의 노고를 잊지 않고 잊겠다는 마음가짐이다. 따라서 지도층일수록 근본에 대한 감사와 처음을 되돌아보려는 마음으로 신종추원 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이 이를 본받고 신뢰를 보낸다. 이는 공동체의 질서 유지와 안녕으로 이어진다. 증자의 통찰이다.

그래서 왕조시대에 상례 및 제사는 혈연에 기초한 추모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에 따른 질서체계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농경문화에서 철따라 변하는 자연은 절기에 맞춰 하나의 상징을 동반한다. 입춘, 입하, 입추, 입동이 있다. 봄과 여름, 가을과 겨울의 시작을 알린다. 그때마다 천자는 각 계절의 기운을 기대하고 환영한다. 하늘에 대한 제사인 교천례郊天禮이다. 천자는 재계한 후 신하들을 데리고 교외에 나가 절기를 맞는 제사를 지냈다. 자연을 맞이하는 성스러운 의식은 자연의 기운을 손님을 맞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대하는 주체적 각성의 표현이다. 이러한 천자의 의례는 천지자연의 변화에 동참하고 호흡함으로써 백성들과 소통하려는 의도가 투영되어 있다.

## 2) , 그리움을 담은 산 자의 정성

유교는 제사를 중시한다. 제사는 인간이 하늘[天, 上帝]과 귀신鬼神에게 정성어린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근원과 교류하는 종교적 의례이다. 자기 조상뿐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삶의 근원이 되는 모든 신적 존재에게 드리는 의례이다. 다만 장소와 시기에 따라 제사의 명칭이 다양할 뿐이다. 만물은 하늘에 근본하고 사람은 조상에 뿌리를 두니, 이것이 상제를 배향하는 이유이다. 곧 제사의 목적은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와 보답[報本]이며, 생명의 근원과 하나 됨[反始]이다. 그렇다고 아무 귀신에게나 제사를 지내는 건 아니다. 형식보다 진실한 마음을 중시했던 공자는 제사지낼 귀신이 아닌데도 제사지내는 것을 아첨으로 보았다. 명분에 부합되지 않는데 함부로 제사지내는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제자들은 공자가 정성으로 제사를 주관하는 모습을 대하면서 “제사를 드리되 조상

이 계신 듯하며, 신을 제사하되 신이 있는 듯하였다.”(『논어』「팔일」)라고 묘사하였다. 공자 또한 제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논어』 팔일)17)

공자는 마치 살아있는 자를 대면하듯 정성과 공경을 다해 제사를 모셨다. 때문에 만일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므로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과 같다고 고백한다. 자신의 지극한 정성이 도달해야 받아들일 신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공경하는 마음이 최우선이다.

제사는 당일치기가 아니다. 제사를 지내기 전 칠일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마늘 등 냄새가 심한 것도 먹지 않으며 외부의 유혹을 털어내야 한다. 제사가 임박한 사흘 전부터는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지극한 정성을 다한다. '살아 계시다'는 심정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감정이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거처와 용모, 기호식품, 유쾌했던 나날들을 생각하다보면 재계하는 대상이 분명하게 마음속에 자리한다.

드디어 제삿날이 되면 자시子時에 제사를 모신다. 자시는 밤 11시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흠향하는데 목적이 있다. '애일愛日'이란 말이 있다. 부모 섬기기에 하루해가 모자란다는 뜻이다. 역시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기에는 하루 24시간도 모자란다는 절박한 심정에 첫 새벽에 제사를 지낸다. 오늘날은 바쁜 현대인의 생활을 고려해 돌아가신 당일 저녁에 제사를 지낸다.

정성을 다한 제사는 조상을 본 듯하고, 소리를 듣는 듯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제사에서 흠향 받는 신의 존재에 대한 『예기』의 생생한 묘사를 들어보자.

마음속으로 치재致齋하고 외모를 산재散在한다. 재계하는 날에 그 조상이 거쳐하시던 것을 생각하고, 그 웃고 말씀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뜻을 생각하고, 그가 좋아하시던 것을 생각하며, 그 즐기시던 것을 생각한다. 재계한 지 사흘 만에 마침내 그를 생각하면서 재계한 분을 보게 된다. 제사지내는 날 사당에 들어가 신위에서 어렵풋이나마 반드시 조상을 보게 된다. 오르락내리락 사당 문을 나섬에 조상의 거동하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된다. 문을 나와 들음에 스산스럽게 탄식하는 조상의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된다. (중략) 이리므로 선왕의 효도는 부모의 안색을 눈에 잊지 않으며, 음성을 귀에 끊지 않고, 하고자 하는 마음과 즐기고자 하시던 것을 마음에 잊지 않으셨으니, 사랑을 극진히 하면 존재하고, 정성을 극진히 하면 나타난다. 나타나고 존재함을 마음에 잊지 않으니, 어찌 공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조상에 대한 흠모는 제삿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연장된다.

이슬이 내렸거든 군자가 이것을 밟으며 반드시 서글프기 마련이니, 그 차가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봄에 비와 이슬이 이미 적셔졌거든 군자가 이것을 밟으며 반드시 놀라는 마음이 있어 장차 부모님을 뵈올 듯이 여긴다.(『예기』)

부모를 그리는 마음은 절기의 변화와 더불어 평생 이어진다. 음산한 가을철에는 만물이 쇠하여 시들므로 서리와 이슬을 밟으면 그 마음이 서글퍼져 슬프다. 반면에 따뜻한 봄날에는 만물이 소생하므로 비와 이슬을 밟으면 그 마음이 놀라 마치 부모를 뵈올 듯이 여긴다. 이러한 추모의 마음이 있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의 책을 차마 읽지 못한다. 손때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술잔과 그릇을 차마 사용하여 마시지 못한다. 기운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모에 대한 효도는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일상의 의례로 자리 잡았다.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실 때 예로써 장사지내고, 제사드릴 때도 예로써 한다.(『논어』 위정.)<sup>18)</sup>

제사에서 가장 마음 쓰이는 것이 제수 준비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제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이 포함된다. 특히 그 해 처음 수확한 것, 가장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정갈하게 준비한다. 『예기』는 하늘이 낳아주고 땅이 자라게 한 것은 모두 올릴 만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든 식물물을 제상에 다 진설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인 것을 선택한다.

제상을 차리는 진설은 준비된 제물의 색깔에 따라 위치가 다르다. 과일 등 시절 음식은 붉은 것은 동쪽에, 흰 것은 서쪽에 배열한다[紅東白西]. 고기는 물고기를 동쪽에, 길짐승은 서쪽에 배열한다[魚東肉西]. 물고기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배열한다[東頭西尾]. 이 같은 진설의 원리는 음과 양에 따라 인간의 질서를 우주적 질서와 일치시키려는 노력에서 나왔다. 하나하나 진설하는 자체가 음양의 구조를 염두에 둔 실습인 셈이다.

요즈음은 제사 때 고인이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을 준비하거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간이나 장소를 고려하는 등 저마다의 상황을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형식은 변해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경건한 추모의 마음가짐이다.

### 3. 일상이 해답이다

‘유학’은 공자를 중심으로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 쓰는 용어다. 이와 달리 종교나 의례적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유교’라고 한다. 현대의 종교다원주의 경향에서 유교는 과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종교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유교라고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공자는 종교적 물음과 연관되는 죽음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삶을 중시한다.

자료가 귀신 섬기는 것에 대해 묻자 공자가 답했다. “아직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또 죽음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답했다. “아직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가?”(『논어』「선진」)<sup>19)</sup>

직언을 서슴지 않아 때로는 스승 공자를 당황스럽게 했던 자료가 제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기에 죽음을 둘러싼 문제는 절실한 삶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도 한때 잘 사는 웰빙(well being)이 화두였다가 근래에는 잘 죽는 웰다잉(well dying)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원에서 투병생활 하면서 마지막을 힘들게 보내기보다는 품격을 지니고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다. 미리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삶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적 계기를 준다.

2,500여 년 전에 살았던 공자에게도 죽음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였다. 다만 그는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냐고 반문한다. 또한 삶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덧붙인다. 어찌 보면 회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자는 귀신이나 죽음보다 일상의 충실을 강조했다. 공자는 성실과 공경이 부족하면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공자는 알 수 없는 귀신을 두려움이나 공포심 때문에 섬기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했다. 번지가 지혜에 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한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고, 귀신을 공경하면서도 멀리 한다면 지혜롭다 할 것이다.(『논어』 용야)<sup>20)</sup>

살다보면 공경하지만 멀리해야 될 대상이 한 둘이 아니다. 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방도 불이 좋다고 불 가까이 가면 타죽는다. 자신이 원하는 것일지라도 그 바람이

지나치면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 입는 경우도 많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적절한 선이 필요하듯 귀신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릇된 믿음에 모든 것을 걸다가 자칫 패가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공자는 '공경하면서도 멀리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자의 올바른 처신이라고 보았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알 수 없는 귀신을 섬기는데 공력을 들이기보다 사람으로서 행해야 될 일상의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공자의 삶이 그러했다.

공자가 삶을 중시하는 이면에는 상제나 천을 중심에 두었던 고대 중국의 사유가 점차 인간의 덕德을 중시하는 사유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두렵고 위협적인 하늘보다 그 하늘의 뜻을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살아가려는 인간과 그 세계에 관심을 돌린 것이다. 백성의 마음과 눈을 통해 하늘을 알 수 있다는 사유의 전환은 백성들의 고단한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그 뒤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지도자가 진정한 왕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정치를 하는 사람은 가문이 아닌 덕과 능력으로 선출되어야 하고, 국가는 백성들의 행복과 복리를 도모해야 했다. 민심이 천심이 되었다. 일상이 답이 되었다.

일상의 통과례인 관혼상제를 살펴보면, 유교의 성인식인 관례는 미래에 대한 희망[希]을 담고 있다. 어른으로서 새로운 출발이자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책임과 기대가 있다. 혼례는 남녀의 결합을 넘어 두 집안의 결합이며 미래로 이어지는 계승[繼]의 의미가 크다. 관례와 혼례는 삶의 도리를 강조한다. 반면 장례와 제례는 죽은 이를 보내는 산 자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있다. 장례는 절절한 애통[哀]을 금하지 못하고, 제례는 공경[恭]을 다한다. 특히 제례는 삶과 죽음, 그리고 일상을 강조하는 유교의 특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처럼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관혼상제라는 예를 통해 우리는 일상에 내재된 유학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논어』에서 인성교육의 길을 찾다

이천승(성균관대 교수)

## 4강 : 지智, 지식을 넘어 지혜로의 길

### 1. 동아시아의 높은 교육열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인들의 높은 교육열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뜨겁다.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허리가 휠 정도이지만 우리 애들만 잘 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자세가 되어 있다. 서울의 강남이 집값이 높은 이유는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명문 학교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이다. 좁은 평수에 전세를 살더라도 한사코 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심지어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이 문제되는 후보라도 자녀교육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고 싶어 한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애들만은 어려서부터 뒤처지게 만들 수 없다는 생각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조기유학으로 이어지고, '기러기 아빠'라는 말이 더 이상 낯설지 않는 현실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와 달리 아직 사립 중학교 입시제도가 남아 있는 일본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사설학원에 다니기도 하고, 사립중학교 입학시험에 대비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 대비 체제를 갖추기도 한다. 일본 아이들이 이처럼 어렵게 사립중학교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유는 성적 우수자들이 그곳으로 몰리고 유명 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중국의 치맛바람은 한국을 능가할 정도다. 일부 소수민족을 제외하고 중국의 인구 제한 정책으로 보통 자녀 한 명을 키우는 중국의 가정은 '소황제'라는 새로운 용어가 나올 만큼 아이를 애지중지한다. '우리 아이들을 출발선에서 뒤처지게 해서는 안된다'는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 때문이다.

그러나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밤낮없이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면 안쓰럽다가도, 그토록 노력해서 들어간 대학 졸업이 청년실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허망함을 느끼기조차 한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교육의 강도는 높아지지만 고등학교나 대학졸업과 동시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도 한다. 한 학기가 끝나면 책상에 수북이 쌓인 그 비싼 참고서를 아무런 미련없이 버린다. 여느 폐지와 마찬가지로 재활용으로 손

쉽게 넘어가는 것이다. 너무 애를 써서 보았기에 신물이 난 것일까? 앞부분 몇 장만 밀줄 그어가며 보다 버려지는 책들도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책과는 담을 쌓는 경우도 많다. “1년에 당신은 몇 권이나 책을 읽습니까?”라는 설문조사가 연중행사처럼 보도되는 것을 보면 그 정도가 얼마큼인지 대충 짐작이 간다. 갈수록 책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기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잠깐 기다리면서 보는 전면 광고의 잡지나 볼 정도로 관심이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대중방송매체를 통한 단편지식이나 술자리 모임 등에서 오가는 추측들만이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로 자리 잡게 된다.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배운 놈이나 안배운 놈이나 똑같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오가는 것은 왜 그럴까? 단순히 나이들어 더 이상 배웠던 것이 쓸모없다는 지식의 무용론을 의미하지만은 않은 듯 하다.

한 때 서구인들은 동아시아인들의 절약과 근면,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중요시하였고, 이런 것들이 동아시아의 기적을 이루어낸 저력이라고 평가한다.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온갖 희생을 감수하는 부모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 결국 이런 과정에서 탄생한 인재들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물론 서구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이러한 가치가 희석되고 발전의 동력을 저해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우리주변에서 보이는 교육열의 허망함을 목격했을 때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 유리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식의 회피도 결국 이미 알 것 다 알아버린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유인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식을 줄 모르는 이 뜨거운 교육열의 진원지는 어디이며, 그 방향은 무엇이 있을까?

## 2. 삶이 곧 배움터

『논어』의 첫 구절은 배움을 강조하는데서 시작된다.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아)

기독교 문명의 정신적 축인 성경의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이고, 이슬람 문명의 핵심 사상을 담은 코란의 첫 구절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인상적이며, 유교가 배움을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삼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배우고 때로 익히는 반복학습은 기쁨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적 무능력을 한탄하기 쉽다. 남들은 한두 번에 능통할 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야 한다는 것은 답답할 노릇이다. 그러나 여기서 배운다는 의미는 알았던 것을 실행한다는 실천적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의 훌륭한 인물들이 했던 그 많은 일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두 배우겠다는 포부를 갖는다면 끝이 없다. 따라서 넓게 배우고, 자세히 묻고, 깊이 생각하고, 밝게 분변하고, 힘써 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모두 배우는 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특히 공자는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란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지녔다. 학문이란 실천을 위한 밑거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제자는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나가면 공손하며 삼가고 미덥게 하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과 친해야 하고, 행하고서 남은 힘이 있으면 글을 배워야 한다.

(弟子入則孝하고 出則弟하며 謹而信하며 汎愛衆호되 而親仁이니 行有餘力이어든 則以學文이 나라)

마지막 구절에서 남은 힘이 있다면 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배움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놓는 것은 아니다. 공자는 "아침에 진리[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단언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과 단언이 남달랐다. 그 스스로 "어느 곳에 가더라도 나 정도의 인격을 갖춘 사람은 찾기 쉬울 것이지만 나처럼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할 만큼 배움을 사랑했던 그였다. 그러나 그가 추구했던 공부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식의 축적이나 남들보다 앞서나가기 위한 배움이 아니었으며, 신비롭고 현묘한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찾아 실천해야 될 사람됨의 의미요, 삶의 길을 뜻한다.

진리란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 공자는 집안에서 아우와 아들은 부모를 잘 섬겨 효도를 잘하고, 밖에 나가서는 형과 어른에게 공손히 대해야 하는 것이 배움의 출발점으로 보았다. 아울러 행동거지는 반드시 삼가고 일정함을 보이며, 말은 항상 믿음직스럽게 해서 실상이 있도록 하며, 남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어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서 배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남은 힘이 있을 때 글을 배우라고 권고한다. 그렇다면 여력이 없다면 배우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라'는 말이 에둘러 상대를 비꼬는 말이라는 것을 안다. 아는

것이 많다고 뽐내거나 오로지 자기만을 아는 사람들 보다는 조금 알더라도 겸손하면 주변을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친다. 순박하고 후덕한 사람에게서 부족한 지식은 앞으로 채워나가면 된다. 별초할 때 양쪽 날을 가는 것은 오히려 칼을 무더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미는 사람 가운데 어진 사람이 드물다”거나 말장난으로 둘러대는 사람을 싫어한다. 배움은 우리의 일상에 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한다.

자하가 말했다. “어진 이를 어질게 여기되 이성을 좋아하는 마음과 바꾸며,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며,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벗과 더불어 사귀되 말에 믿음이 있으면 비록 배우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말하리라.”

(子夏曰 賢賢호되 易色하며 事父母호되 能竭其力하며 事君호되 能致其身하며 與朋友호되 言而有信이면 雖曰未學이라도 吾必講之學矣라호리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먹음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처함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에 민첩하며, 말에 삼가고 도가 있는데 나아가 바로잡으면 배움을 좋아한다고 말할만 하다.”

(子曰 君子食無求飽하며 居無求安하며 敏於事而慎於言이요 就有道而正焉이면 可謂好學也니라)

배움의 중요성은 공자 이래로 유학의 특성이 되었다. 맹자와 더불어 공자의 사상을 발전시켰던 순자에게서 그러한 생각은 잘 정리되어 나타난다.

○ 군자들은 ‘학문은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말한다. 푸른 물감은 쪽풀에서 얻지만 쪽풀보다 더 파랗고, 얼음은 물로 이루어졌지만 물보다 더 차갑다. 나무가 곧아서 먹줄에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굽혀서 수레바퀴를 만들면 굽은 자에 들어맞게 되고, 비록 바삭 마른다 하더라도 다시 퍼지지 않는 것은 이미 굽혔기 때문이다.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쇠는 숫돌에 갈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군자도 널리 배우며 매일 자기에 대해 생각하고 살피면 얕이 밝아지고 행동에 허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높은 산에 오른 적이 없으면 하늘이 높은 것을 알지 못하고, 깊은 계곡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땅이 두터운 것을 알지 못하며, 옛 훌륭한 임금들이 남긴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학문의 위대함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오나라나 월나라나 오랑개의 자식들도 태어났을 때는 같은 소리를 내지만 자랄수록 풍습이 달라지는 것은 가

르침이 다르기 때문이다.

○ 나는 일찍이 하루 종일 생각만 해 본 일이 있었으나 잠깐 동안 공부한 것만 못하였다. 나는 일찍이 발돋움을 하고 바라본 일이 있었으나 높은 곳에 올라가 널리 바라보는 것만 못하였다. 높이 올라가 손짓을 하면 팔이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멀리서도 보이며, 바람을 따라 소리치면 소리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들리며, 수레와 말을 타면 더 빨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천 리 길을 갈 수 있으며, 배와 노를 이용하면 물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강을 건너갈 수 있다. 군자는 나면서부터 남과 달랐던 것이 아니라 사물을 잘 이용할 줄 아는 것이다.

○ 서쪽에 나무가 있는데 이름을 야간(射干)이라 한다. 줄기의 길이는 네 치지만 높은 산 위에 자라고 있어서 백 길이나 되는 심연을 바라보고 있다. 나무의 줄기가 길기 때문이 아니라 높은 산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순자』 첫머리에 나오는 '학문을 권하는[勸學]'의 구절이다. 사람은 쪽풀에서 그보다 더 푸른 물감을 만들어내듯이 학문을 통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靑出於藍, 靑於藍] 또는 곧은 나무라도 이리저리 굽혀서 다양한 기구를 만들어 내듯이 사람들도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가능하다. 더 큰 인재로 혹은 더 좋은 인격자로 변화시키는 힘이 교육에 달려 있으므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에서 지내는지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은 결코 낯선 말이 아니다. 앞서 배우고 익힘을 강조하였던 공자의 언급도 모든 사람이 태생적으로 다르지만 배우고 익히다 보면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몰랐던 것을 알아가고, 알았던 것을 더욱 확실히 알아서 응용에까지 이르는 즐거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낯선 것이라도 자꾸 쓰다보면 손에 익어서 자유자재로 부리게 된다.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신기에 가까운 손놀림도 애초부터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자꾸 자꾸 쓰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먼저 반응한다.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이미 익숙해진 것은 점차 편하고,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새로운 변용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어떤 물건을 물에 푹 담가두면 처음에는 걸만 적지만 오래 담가두면 속까지 젖어드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 억지로 한 발 딛고는 오래동안 서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 3. 온 몸으로 터득한다

유학을 중심으로 동양의 전통을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전통과 현대의 깊은 간격을 느낀다. 성현을 지향하면서 자신의 삶으로 체화시키려는 전통시대 지식인들의 공부의 내용도 그렇거니와 학습의 출발부터 방법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공부의 출발지였던 서당교육은 소리내어 읽는 성독, 그 과정에서 저절로 습득되는 암송, 그리고 문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득의 세 가지를 중시하였다. 먼저 훈장은 운율에 따라 소리 내어 읽기를 강조한다. 처음부터 많은 양을 알려주기 보다는 얼마 안되는 구절을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글자를 읽히면서 은연중에 문장학습의 효과를 추구하는 [추구]의 첫구절은 “天高日月明이요 地厚草木生이다.” 출발은 하늘 천, 높을 고 등으로 한 글자 한 글자씩 새기면서 대구로 이루어진 구절 전체를 대략 이해한다. “하늘은 높아서 해와 달은 밝으며 땅은 드넓어서 풀과 나무가 자라난다.” 일단 파악한 구절을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는다.

읽다보면 개인에 따라 운율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일단은 훈장이나 선임자를 모방하지만 점차 자신의 호흡에 맞는 최적의 상황을 맞춰간다. 구절의 끊어읽기가 틀리지 않는 한 크게 문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수십번의 성독을 통해 푹 건드리면 저절로 그 문장이 튀어나올 때가 되면 어느덧 암송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애써 외우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독과 암송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이다. 즉 머리 속의 기억에 머무르는 암기(暗記)를 넘어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표출되는 암송(暗誦)인 것이다.

동양의 배움 전통에서 읽고 외우는 것은 생각의 힘을 키우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창의력 학습도 무엇인가를 창의적으로 고집어낼 수 있는 기본적 내용이 있어야 한다. 아무 생각도 없거나 가진 것이 부족하다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도 반감된다. 물론 지식의 전달에만 치중하여 경직된 교수학습으로 이어지는 것도 문제다. 그렇다고 마냥 열어 놓을수 만은 없다. 그러기에 전통적인 공부법에서는 성독과 암송을 통해 획득된 내용을 스스로 터득하는 자득(自得)의 과정을 중시한다. 앞서 [추구]의 첫머리인 “천고일월명이요 지후초목생”이 어떤 의미인지를 자신에게 되묻는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높은 하늘과 드넓은 땅이라는 우리를 둘러싼 자연을 배경으로 해와 달이 번갈아 가며 운행하고 그 속에서 온갖 초목들이 자라난다. 자연을 무대로 펼쳐지는 삼라만상의 변화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月出天開眼이요 山高地擧頭라”는 구절은 더욱 사실적이다. “해가 떠오르니 하늘이 눈을 뜨고 산은 높으니 땅이 고개를 든다” 참으로 시적인 표현이다. 어두운 밤하늘에 떠오르는 달은 마치 하늘이 눈을 뜬 것처럼 이 곳 저 곳이 밝아지며, 땅 위에 솟아있는 높은 산은 땅이 머리를 치켜든 것처럼 삐죽삐죽하다는 것이다. 이 글을 지은 작자는 글자의 대구 속에 자연계의 변화양상을 의인화하여 정감적으

로 표현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자연의 아들 딸이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복잡한 인간사에 얽매이며 좌충우돌하는 현실에서 변함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큰 흐름 속에서 자기를 되돌아보게 한다. 그렇게 스스로 터득해가는 자득의 과정 속에 눈 앞에 놓인 한자는 없어지고 자연을 마주대하고 있는 진솔한 자신만이 남게 된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마음 속에 “天高日月明이요 地厚草木生이라, 月出天開眼이요 山高地舉頭라” 한 구절이 남아있다.

동양의 공부법으로 정착된 성독과 암송, 자득이 어우러지는 삼박자는 동시에 진행된다. 새로운 방법으로 유학을 재천명한 송나라 주희는 ‘독서법’이라는 글에서 “성현의 말씀을 모름지기 눈으로 읽고, 입으로 낭송하며, 마음으로 돼새겨야 한다”고 말한다. ‘독서삼도’로 일컫어지는 독서법, 즉 눈으로 책을 보는 안도(眼到), 소리내어 읽는 구도(口到), 마음으로 터득해가는 심도(心到)의 세 단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즉 책을 읽을 때 눈뿐 아니라 입과 마음까지 동원된 온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 중국의 문호 루쉰은 주희의 이 말을 좌우명으로 삼아 실천했다. 그의 고향 저장성 샤오싱의 루쉰박물관에는 그가 사용했던 ‘독서삼도’라는 책갈피가 전시돼 있다.

옛 고서를 마주대할 때는 때로 오감이 모두 동원된다. 고서는 책의 형태나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글씨에서 시각적으로 만족하고, 소리 내어 읽다보면 청각에 도취되고, 오랜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는 후각, 몇 겹의 닥나무의 재질에서 우리나라는 맛깔스러움이 미각과 촉각을 자극하는 듯 하다. 감각적 오감으로 통하기에 구절구절이 살아 숨쉬고 어느덧 책 속에 빠져들어 내가 책이 되어 버린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특히 책 속에 담긴 내용이 각박해져가는 내 정신을 세차게 몰아치는 경우는 밀려드는 감흥을 억제하기 힘들다. 옛 사람들은 목욕재계하고 향불을 켜놓고서 책 속에 몰입한다는 것도 이러한 느낌이 아닐는지 모르겠다.

여하튼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마음까지 총동원되어 독서하는 온 몸의 체득과정은 우리에게 잊혀진 선현들의 공부법이였다. 책이 넘쳐나는 세상, 정보가 학문을 대신하고 검색 능력이 공부를 좌우하는 시대에서는 낯선 풍경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쉽게 얻은 정보는 오래가지 못한다. 생각하지 않고 검색해서 얻은 지식은 쉽게 사라진다. 이럴 때일수록 진정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공부를 찾아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과거의 지식이 모두 오늘날에서 필요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안목을 쌓기 위해서라도 공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의 출발점에서부터 동양의 전통적인 공부방법을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 4. 자신을 위해 철저히 파고드는 공부

가수이며 음반제작자인 박진영이 2013년도에 발표한 앨범에 '놀만큼 놀아봤어'라는 곡이 있다. 화자話者는 놀만큼 놀아봤고 별만큼 벌어들였으며 즐길 만큼 즐겨봤다. 그럼에도 자신을 채울 수 없는 공허, 허기진 배, 해결되지 않는 허전함과 외로움을 노래한다. 뮤직비디오에는 젊은 박진영이 거울 속의 늙고 초라한 박진영을 보고 있다. 놀만큼 놀아본 그가, 별만큼 벌어들인 그가 '나는 어디에', '지금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질문하며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을 느끼며 산다. 수많은 SNS 친구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만 정작 외롭고 늘 허기져 있다. 이것이 현대인의 자화상인 것이다. 그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면서 내딛는/ 힘찬 발걸음으로 살기를/ Please Save me"라고 외친다.

과연 나는 누구이며 어디에 있으며 문제는 무엇일까? 가진 것은 많은데 왜 외롭고 배고프며 초라한가? 우리가 찾아야 하고 가야 할 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연 공부를 통해 그와 같은 즐거움, 무엇보다도 나를 흥분시키는 희열을 느낄 수 있을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하거나 공부를 통해 대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결코 공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맞추거나 시험의 합격 등을 위한 공부는 이미 도구화되고 수단화되었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곤함을 줄뿐이다. 그 공부는 남에게 평가받기 위한 학문으로, 즉 위인지학爲人之學이다. 이것을 통해서 마음속의 희열은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희열과 즐거움을 얻는 공부는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자신을 위한 학문, 즉 위기지학爲己之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옛날의 학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 공부했는데,  
지금의 학자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한다."(현문)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

공부의 길은 본래 자신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터득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기쁜 것이다. 남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에 구애되지 않는다. 반면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부는 자기만족의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비교 대상보다 잘하는 것이 목표이고, 경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부가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해버린다. 공부를 하면서 칭찬과 보상을 받기 위한 공부, 철저히 도구화되고 수단화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겠는가? 공

부하는 과정은 죽기보다 싫을 정도로 힘겹고 짜증이 날 것이다. 그럼에도 원하는 목표를 얻으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도 아니면 이 공부는 다시는 쳐다보기도 싫은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만약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미 도구로서의 가치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으며, 다시 본다는 것 자체가 끔찍한 일인 것이다. 결국 그 공부는 나의 지식이나 인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단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 1) 왜 배워야 하는가?

『중용』은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다[천명지위성天命之謂性].”라는 선포로 시작한다. 마음 심心和 날 생으로 이루어진 성은 ‘살려는 마음’,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지자연을 이루고 생명을 존재하게 한다.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생명운동이 가능한 까닭이다. 그런데 하늘이 명하여 우리 내면에 주어졌지만 우리는 성을 알 길이 없다. 성을 아는 방법으로 맹자는 ‘마음을 다하는 것’을 제시한다. “마음을 다하면 성을 알고, 성을 알면 하늘을 안다.”<sup>1)</sup>는 것이다. 성과 하늘이 한 뿌리이며 우리 안에 하늘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마음을 다해 우리 안에 성이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늘을 알게 되면, 성은 나뿐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고, 나와 너의 마음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 이것이 “내 마음을 토대로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추기급인推己及人]” 근거이다. 즉 유학의 황금률Golden Rule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하지 않는[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 것은 나와 너의 마음의 근거가 같음에서 출발한다. 이것이 마음을 다해서 성을 알고 하늘을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이처럼 유학에서의 공부는 자기 내면의 뿌리를 살피서 그 근거를 확인하는데 있다. 몸의 입장에서는 개별적 존재로 70억 명이 다 다르지만, 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인 것이다. 지금까지 나와 너는 별개이기에 서로 경쟁하고 이기려고 애썼지만 성을 통해 하늘을 알고 모두가 큰 하나임을 알게 되면 경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모두가 하늘이며 모두가 하나인 것이다. 물질인 몸은 70억이 다 다르고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나의 존재의 근원은 무한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깨달음은 희열과 기쁨이 된다. 배우고 때에 맞추어 익히는 것이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되는 것은 책상머리의 불박이 공부를 이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인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 있나? 라는 전존재적 질문에 대한 깨달음에 내지르는 탄성이다. 맹자의 “만물이 모두 내게 갖추어져

1) 『孟子』 「盡心上」: 盡其心者 知其性 則知天矣.

있다[만물개비어아萬物皆備於我].”라는 탄성도 마찬가지로이다. 사람은 삶을 알 때 진정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점[삶+앎=사람]에서, 이를 알 때 공부가 기쁨으로 다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이치를 탐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그것은 앎으로 그치지 않고 행이 되어 삶으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한한 몸을 ‘나’라고 여기며 살아왔다. 그뿐 아니라 옆에 있는 몸과 구별하고 나누며 다투고 미워했다. 그가 잘 되면 배가 아팠다. 성을 따라 살면 하늘처럼 살 수 있다는데 쉽지 않다. 하늘이 명한 것이 성이라면 “성을 따르는 것이 도[술성지위도率性之謂道]”이다. 도를 파자하면 갈 착<sub>3</sub>과 머리 수<sub>1</sub>로 이루어져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 머리로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내딛는 길이 도인 것이다. 도가 사람이 가는 길인 인도人道, 하늘의 길인 천도天道를 가리키는가 하면, 우주의 원리나 이치를 이르기도 하는 이유이다. 즉 도는 모든 존재가 걸어야 하는 길이요 자연의 움직임이다. 따라서 일정한 길이 있다. ‘성을 따르는 것’이 그 길이다. 곧 하늘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하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며 사람다운 존재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순간순간 욕심에 가려지기 때문이다. 아·목·구·비·촉<sub>1</sub>·목·구·비·촉<sub>2</sub>의 오감이 외부의 사물과 접할 때 일어나는 감정이 올바르게 발휘되지 못하고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욕심으로 왜곡된 이것을 자칫 자기라고 착각한다. 경쟁하고 미워하며 이익이라 여기는 것을 움켜쥐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 때문에 성의 작용은 느낄 수조차 없고 성을 따르는 길도 알 수 없게 된다. 그를 위해 길을 찾고 닦아야 한다. 흐려지고 가려져서 보이지도 느낄 수 없는 도가 제 역할을 하려면 도를 닦아야 가능하다. 그것이 교<sub>1</sub>이다.

즉 도를 닦아서 따라야 할 성을 확인할 때 그 뿌리가 하늘임을 알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명령임을 알게 된다. 공자의 “천명을 알았다[지천명知天命]”는 고백은 자신 안에 무한無限이 있음을 깨달은 탄성이며,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이 하늘의 명령이며 부르심임을 고백한 것이다. 곧 나는 ‘몸’에 한정된 존재가 아닌 것이다. 이 ‘몸’이 나일 경우, 경쟁하고 다투야 하며 조금도 손해를 보면 안 된다. 남보다 잘 살아야 하고 뛰어나야 한다. 잘 되는 친구는 눈엣가시이다. 하지만 ‘몸’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곧 하늘인 것이다. ‘사람이 곧 하늘[인내천人乃天]’은 ‘내가 곧 하늘[아내천我乃天]’이 되어, 하늘처럼 사는 삶을 유도한다.

이것이 이치를 궁구하게 파고들고 철두철미하게 공부함으로써 얻는 지혜이다. 곧 “도를 닦는 것을 가르침이라고 이른다[修道之謂教].”는 “배우고 때에 알맞게 익히니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탄성이 되어 나와 너, 나와 우리를 넘어 우주 전체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 2) 무엇을 배우는가

『대학』은 ‘대학의 도는 밝은 덕을 밝히는데 있고, 백성과 하나 되는데 있으며, 지극한 선에 머무는데 있다’<sup>2)</sup>는 문장으로 그 문을 연다. 큰 배움의 출발과 가치관이 밝은 덕을 밝히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유학에서는 배움을 크게 둘로 나눈다. 소학과 대학이 그것이다. 소학에서는 물 뿌리고 비로 쓰는 것에서부터 사람을 대하고 때에 맞게 나아가고 물러남을 통해 실천해야 할 바른 행위를 배우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선생님을 높이고 친구와 하나 됨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기본질서를 배웠다.

열다섯 살에 입학하는 대학은 일정한 자격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었다. 천자의 자식, 공경대부와 으뜸가는 선비의 맏아들, 그리고 백성 중 뛰어난 아이들이 그들이다. 국가를 이끌 그들이 배우는 것은 대학의 도였다. ‘밝은 덕을 밝히는[明明德明明德]’ 것을 시작으로 ‘백성과 하나[친민親民]’ 되고, ‘지극한 선에 머무는[지어지선止於至善]’ 것으로 완성되는 대학의 도를 통해 자신을 닦아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존재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다.

밝은 덕을 밝힌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본래 있는 덕이 밝음을 전제하는데, 욕심 등 여러 요인으로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히는 것이 대학인의 사명인 것이다. 국가를 이끌 인재들이 명덕을 밝힐 때 백성들의 삶이 고르고 화목하며 안정된다. “자신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그 명령이 행해지지만, 자신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sup>3)</sup>는 공자의 말씀은 윗사람의 술선수범이 통치의 기본이며 시작임을 말한다. 그 출발이 명덕 밝히기이며 자신을 닦는 수신이다. 따라서 리더의 수신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닌 리더의 본분이다. 그를 바탕으로 집안이 조화롭게 되고, 나라가 다스려지며 세계가 평화롭고 안정될 수 있다. 세계평화는 거창한 구호나 거대한 행사가 아닌 수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신해야 할까? 먼저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 정심正心이 그것이다. 그를 위해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하고[성의誠意], 앎을 지극히 하며[치지致知], 사물의 이치를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격물格物]. 즉 격물·치지·성의·정심, 이 네 가지가 수신 내용이다.

2) 『大學』 經1章: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親民 在止於至善

3) 『論語』 「子路」: 子曰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

## (1) 마음을 바르게 하다[정심正心]

몸은 물질이다. 몸은 흙과 물과 불과 바람과 같은 물질이며, 온갖 물질이 모여서 이루어진 물질의 덩어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거나 추함, 건강하거나 허약함을 막론하고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죽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며,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뿐인가? 아니다. 물질이지만 물질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다. 먹고 입고 생활하는 기본부터,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미래를 위해 끝없이 노력하는 것도 물질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몸은 비록 물질이지만 이 몸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마음이다. 마음의 움직임에 따라 몸이 반응하고, 그에 따라 기쁘거나 분노하고, 아프거나 슬퍼하기도 한다. 거대한 몸을 움직이는 주체가 바로 마음인 것이다. 그 때문에 마음속에 분하거나 성내는 것,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 좋아하거나 즐거워하는 것, 근심거리나 걱정하는 것이 있으면 온통 그에 쏠려 몸도 마음도 바르게 할 수 없다. 또 마음은 눈·코·입·귀와 촉각 등의 감각기관의 영향을 받고, 감각기관은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모른다.”<sup>4)</sup>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신의 출발이다.

마음의 움직임은 종잡을 수 없어 자칫 욕심으로 가득 차 위태롭기도 하고, 본래 주어진 마음이 가려져 보이지 않기도 한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수신의 출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를 통해 자신을 바르게 하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 (2) 뜻을 정성스럽게 하다[성의誠意]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 뜻을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 것[무자기無自欺]’을 강조한다. 또한 ‘홀로 있을 때조차도 신중히 할 것[신독愼獨]’을 당부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하지 않는 일이 없다. 그러다가 보는 눈이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세를 고치고 바르게 행동한다. 『대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4) 『大學』 傳7章: 心不在焉 視而不見 聽而不聞 食而不知其味.

“소인은 한가하게 거처할 때 좋지 않은 행동을 마음대로 하다가, 군자를 본 뒤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나쁜 행동을 감추고 착한 행동을 드러낸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마치 그 폐와 간을 보는 것처럼 하니, 감춘다고 무슨 이로움이 있겠는가? 이를 일러 속에서 성실하면 겉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혼자 있을 때 생각 없이 했던 행위마저도 남들이 안다는 것이다. 잠깐 바르게 행동하고 감춘다고 속일 수 없다.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제 어디서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상은 CCTV의 감시를 받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CCTV에 찍히는데, 노출되는 빈도가 하루에 약 90회 정도 된다고 한다. “열 사람의 눈이 보는 바이며, 열 사람의 손이 가리키는 바이니, 무섭구나!”라고 한 증자의 말처럼 자신을 속이지 않고, 행동거지를 성실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마음을 지니는 길이다.

### **(3) 앎을 지극히 하여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다**

진정으로 좋은 곳을 보고, 좋은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힘을 쏟아 자세하게 보아야 한다. 이것이 공부의 자세이다. 즉 사물의 이치에 나아가 그 이치를 따라서 깊이 파고들 때 앎이 지극해져 어느 순간 흰하게 꿰뚫게 된다. 『대학』에서는 “사람의 마음은 신령스러워 앎이 있지 앎음이 없고, 천하의 사물은 이치가 있지 앎음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물의 겉뿐 아니라 속까지, 정밀하고 거친 곳에 이르기까지 앎이 이르러 환하게 통하게 되면 사물의 큰 작용이 밝게 된다. 그럴 때 하나의 이치로 전체를 꿰뚫게 되고, 만물을 아는 것이다. 『주역』의 “천하의 이치는 하나지만 생각은 갖가지이고, 같은 곳으로 귀결되지만 가는 길은 다르다.”고 한 것이 이것이다. 하나의 이치로 세계의 앎을 궁구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뜻이 성실해지며, 뜻이 성실하고 정성스럽게 될 때 바른 마음을 갖출 수 있어 올바름으로 자신을 닦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배움은 자신의 근원과 만나는 길이며 세상의 이치와 사물의 큰 작용을 파악하는 길이다. 그것은 자연스레 나와 타자, 나와 집안, 나와 국가 등 관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 부모와 자녀, 어른과 아이, 형제 등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이해와 양보, 배려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다. 『시경』에서 “아내에게 모범이 되어 형제에 이르고, 집과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 것은 한 사람의 수신이 국가에까지 미침을 찬탄한 것이다. 그 첫걸음이 세상의 이치를 치밀하고 철두철미하게 연구하고 파고드는 노력인 것이다.

### 3) 어떻게 배울 것인가

그렇다면 철두철미하게 파고드는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경敬의 자세를 갖는 것이다. 경이란 '공경하다, 경건함을 유지하다, 올곧게 견지하다'의 뜻으로, 통치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었다. 공자는 일을 경건하게 처리하는 것[경사敬事]을 통치자의 임무로 보았고, 군자가 행해야 할 수양의 틀로 제시했다[수기이경修己以敬]. 『주역』에서도 '경으로 마음을 곧게 한다[경이직내敬以直內]'고 하여 수양의 수단으로 보았다. 곧 일상생활에서 동요됨 없이 마음을 고요하게 간직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경직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무게에 따라 저울추가 움직이며 수평을 유지하는 것처럼 경은 올바르고 마땅함을 따라 中을 행하는 것이다.

성리학을 주창한 정이程頤는 “도에 들어가는 것은 경만한 것이 없고, 앞에 이르는 것도 경에 달려 있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여, 경을 중시하였다. 그는 경을 '하나에 집중하여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모으는 것'인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고 풀이하었다. 즉 “경은 다만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니, 하나에 집중하면 동으로도 가지 않고 서로도 가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면 중”이라고 하였다.

마음은 한순간에 천리 밖을 달아나기도 한다. 마음을 두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딴 데 가 있고, 텅 비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다. 어느 땐 읽고도 기억하지 못한다. 눈은 책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종일 책을 붙들고 있어도 내용을 알지 못한다. 숙종 때의 시독관인 김창협은 “바야흐로 점 하나를 짚을 때는 마음이 다만 한 점 위에 있고, 한 획을 그을 때에는 마음이 다만 한 획 위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주일무적입니다. 이와 같아야 마음에 방기하는 바가 없으니, 학문하는 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하여 마음을 하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학문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를 위해 끝없는 흔들림 속에서도 중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 마치 나침반처럼.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늘 떨고 있다. 나침반의 떨림은 어느 상황에서도 북극을 향하기 위한 부단한 몸부림이다. 경은 나침반의 바늘이 북극을 가리키는 것처럼 다양한 상황과 흔들림 속에서도 중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한곳에 고정되어 그 흔들림이 멈춰서, 고민도 의문도 없이 자신만이 옳다고 여길 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된다. 떨림이 없는 나침반은 쓸모가 없듯이 치우침은 더 이상 경이 아니다. 경의 자세로 만물의 이치를 터득할 때 앞에 이르고, 나를 알고 성을 알며 하늘을 알게 된다. 이것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다.

#### 4. 앎을 삶의 현장으로

배움은 솔직해야 한다. 알고 모르는 경계지점이 헛갈리면 오히려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공자는 제자 가운데 가장 용맹스러우면서도 남들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의 소유자인 자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로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까 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아는 것이다.”

(由아 諄女知之乎인저 知之爲知之요 不知爲不知가 是知也니라)

우리는 간혹 모르는 것이 있더라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때문에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괜히 아는 것처럼 대충 얼버무린 답변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분명히 친척은 맞은 것 같은데 자신과의 관계가 불명확해지면 만나도 서로 부르기도 못하고 공동의 관심사도 줄어들기 십상이다.(이전에 족보에 관심을 갖고 족보를 통한 촌수와 이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삼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한번 했던 거짓말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로 이어지면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기도 한다. 차라리 좋고 싫음이 분명해야 상대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고 더욱 진실된 만남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다.

공자는 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로의 호기에 일침을 놓으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것이며, 자신의 본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천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자도 안되는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대로 알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의 진실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공자는 “향원은 덕을 해치는 사람이다”고 단언한다. 향원은 시골에서나 인정받는 고만고만한 사람을 말한다. 즉 그는 시골 사람들은 모두 후덕하고 신뢰할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진 덕도 부족하고 신뢰할만한 부분도 적은 사람들이다. 그는 겉으로는 청렴하고 초월한 듯 하지만 내심으로는 은근히 남들을 무시하고 기회를 노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 공자는 그와 같은 사람을 덕을 해치는 사람이라고 직선적으로 비판한다. 사이버로 빠지기 쉬운 이중인격자들이 본질을 해치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진단이다. 영터리 사이버 종교들의 모습에서 성실한 종교인들이 도매금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모방을 넘어서 그럴듯한 유사품이 나돌면 그 제품의 신뢰도는 반감되기 마련이다. 명품을 능가하는 짝퉁시대에 사는 우리인

지라 공자의 지적이 새삼 와 닿는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덕을 해치는 향원이 아니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유학에서 제시된 공부방법은 널리 배우고, 심도 있게 질문하고, 신중하게  
사고하고, 명확하게 변별하고,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 박학博學,  
심문審問, 근사謹思, 명변明辨은 지식의 측면을, 독행篤行은 실천의 측면을 말한다.  
지식과 실천이 함께 병행할 때 비로소 올바른 공부가 완성된다는 의미이다. 공부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실천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평소에 깨닫지 못하던 것을 현실의 삶 속에  
서 발견하는 순간, 희열과 함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이미 삶의 진리를 깨달  
았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어떻  
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이후의 인간관계는  
반드시 변화되는 것과 같다.

유학의 수신은 자신을 닦아 근원에까지 이르고,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지혜  
로움은 이를 근거로 발현되는 힘이다.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는 데미안의 고백처럼 알을 깰  
때 새로운 세계를 만난다. 그것은 배움을 통해 가능하며, 배움은 세계와 세계를 연  
결해주는 힘이다. 지혜는 이렇게 열린다.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롭다.”

(學而不思則罔하고 思而不學則殆니라)

높은 교육열을 지닌 우리 사회에서 배움의 길은 끝이 없다는 말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 주변으로부터 적극적인 학습기회를 제공받고, 정규과정 이외에  
도 남들과의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러나 갈수록 넘쳐나  
는 배움의 양에 지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한 물음은  
쉽게 떠나지 않는다.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해왔거나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혹은  
폼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공부였다면, 그에 따른 마음  
의 공허함은 커져갈 것이다.

전통시대 지식인들은 현대에 비하여 배우는 양은 적었지만 내용만은 알차게 채우고  
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배운다는 것이 의미를 지니기 위해서는 학문과 그것을 배우  
는 학습자가 항상 일대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배운 내용과 그 속에 담  
긴 이치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자신의 경우에 비추어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다. 맞  
고 틀림, 혹은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을 능동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순

한 지식의 축적에 불과하다. 앵무새처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배우이란 자신에게 분명한 인상으로 남는 것이 없으므로 막막하고 여전히 어두운 상태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스스로 생각만할 뿐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배우는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문제는 있다. 검증받지 못한 주장은 때로는 주관적 편견이나 학문적 체계를 결핍하기 때문에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우고 생각함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칠 경우에 생기기 쉬운 어둡거나 위태로운 폐단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치 두 날개로 하늘을 날고 있는 새처럼 두 가지를 균형있게 유지해 나가는 학문자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지침돌이 될 것이다. 배우기라는 쾌속열차를 타면서도 편안하고 여유로운 여행을 시작해볼 때다.

- 
- 1) KBS 유교 제작팀 지음, 『유교, 아시아의 힘』, 예담, 2007.
  - 2) 『논어』「안연」: 子曰 “愛人.”
  - 3) 『논어』「안연」: “己所不欲, 勿施於人.”
  - 4) 『논어』「팔일」: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 5) 『논어』「안연」: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 6) 『논어』「리인」: 子曰 “唯仁者, 能好人, 能惡人.”
  - 7) 『논어』「위령공」: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 8) 『논어』「리인」: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 9) 『논어』「옹야」: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 10) 『논어』「안연」: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祭. 己所不欲, 勿施於人. 在邦無怨, 在家無怨.”
  - 11) 『논어』「위령공」: 子貢問曰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 子曰 “其恕乎. 己所不欲, 勿施於人.”
  - 12) 『논어』「위정」: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有養, 不敬, 何以別乎?”
  - 13) “임종에 어린이 방문은 좋은 것인가. 일반적으로 임종 병실이 어린이 방문은 금기로 알고 있다. 멋모르고 까불대는 것이 환자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이와는 정반대다. 어린이 방문만큼 환자에게 큰 위안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애들은 큰 부담이 없다. 재롱도 떨고 하므로 즐겁기도 하고, 또 한편

겉에서 지켜봄으로써 자신의 연장을 확인하게 되므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도 쉬워진다. 나의 많은 부분이 손자를 통해 대를 이으며 살아남는다는 것 확인하게 된다.” (김기현의 『선비』(민음사, 2009)에서 인용한 이시형의 임상에서 지켜보는 죽음)(김열규 등, 『죽음의 사색』, 서당, 1989)을 재인용)

- 14) 『중용』 20장 :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辨之, 篤行之..... 人一能之己百之, 人十能之己千之”.
- 15) 『論語』「憲問」: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 16) 『論語』「學而」: 曾子曰 “慎終追遠, 民德歸厚矣.”
- 17) 『論語』「八佾」: 子曰 “吾不與祭, 如不祭.”
- 18) 『論語』「爲政」: 子曰 “生事之以禮, 死葬之以禮, 祭之以禮.”
- 19) 『論語』「先進」: 季路問事鬼神. 子曰 “未能事人, 焉能事鬼?” 敢問死. 曰 “未知生, 焉知死?”
- 20) 『論語』「雍也」: 子曰 “務民之義, 敬鬼神而遠之, 可謂知矣.”

중화탕  
中和湯

患無邪 : 생각에 사악함이 없도록 하라.

行好事 : 좋은 일을 행하라.

莫欺心 : 속이는 마음이 없도록 하라.

行方便 : 편안하게 행동하라.

守本分 : 자기 분수를 지켜라.

莫嫉妬 : 질투하지 말라.

除狡詐 : 간사하고 교활한 마음을 버려라.

務誠實 : 성실하도록 힘쓰라.

順天道 : 하늘의 도리를 따르라.

知命限 : 運命의 한계를 알아라.

淸心 : 마음을 깨끗이 하라.

寡慾 : 욕심을 적게 부려라.

忍耐 : 고통을 참고 견디어 내라.

柔順 : 부드럽고 공손하게 하라

謙和 : 겸손하고 온화하라.

知足 : 만족할 줄 알아라.

廉謹 : 청렴하고 몸가짐에 조심하라.

存仁 : 어진 일을 행하라.

節儉 : 검소하고 절제하라.

處中 :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게 몸가짐을 신중히 하라.

戒殺 : 해치거나 죽이는 짓을 삼가라.

戒忿 : 함부로 성내지 마라.

戒暴 : 포악함을 삼가고 진정하라.

戒賁 : 탐욕을 내지 마라.

慎篤 : 조심스럽고 독실하게 행하라.

知機 : 기미를 알아서 행하라.

保愛 : 보호하고 사랑하라.

恬退 : 옳지 못한 것을 용감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한다.

守靜 : 고요함을 지킬 줄 알아라.

陰廬 : 몰래 남을 해치고자 하지 마라.

<이상 재료 30가지를 잘 섞어서 가루로 만들어 섞은 다음, 느긋하게 달여 때를 가리지 않고 수시로 복용한다.>